

서산의 문화유적



서산문화원

서산의 문화유적

서산의 문화유적

발행인 | 이준호

발행일 | 2010. 12. 27

발행처 | 서산문화원

주 소 | 충남 서산시 읍내동 516

전 화 | 041) 669-5050

인쇄처 | 가야인쇄기획

주 소 | 충남 서산시 읍내동 466-10

전 화 | 041) 667-6400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산의 문화유적

목차 Contents



06 발간사 |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07 고지도로 본 서산

08 문화재(文化財)란 무엇인가!

10 서산(瑞山)의 역사

12 서산시 문화재 현황

선사유적

14 휴암리 선사유적지 / 인지 둔당리지석묘

고분군

16 음암 부장리 고분군

18 예천동 고분군

20 대산읍 대로리 명지고분군

요지

21 서산지역의 요지(窯址) 유적

22 성연면 오소리 청자요지

불교유적

24 서산마애삼존불상

26 보원사지

29 개심사

32 문수사

34 부석사

36 천장사

38 일락사

39 동문동 당간지주 / 동문동 오층석탑

41 백암사지 / 간월암 목조보살좌상

42 여미리 석불입상

43 석남동 석불입상

읍성과 관아유적

44 해미읍성

46 서령관아문 및 동헌

47 서산객사

유교유적 서원향교

48 서산향교

49 해미향교

50 성암서원

51 송곡서원



사우

- 52 부성사
- 53 송덕사
- 54 진충사

민속가옥

- 56 김기현 가옥 / 정순왕후 생가
- 57 김동진 가옥 / 유상목 가옥 / 유기방 가옥

금석문관련

- 58 명종대왕태실 및 비 / 김두징 묘비
- 59 읍내리 귀부석 / 윤시영 홍양일기

근대문화유산

- 60 서산 동문동 성당 / 서산 상흥리 공소
- 61 천주교 해미순교성지

무형문화재

- 62 서산박첨지놀이 / 심화영 승무

향토관

- 63 대산중 학교 향토관 / 서산향토자료관

인물

- 64 고운 최치원
- 66 정인경
- 68 금현 류방택
- 70 무학대사
- 72 충무공 정충신
- 74 안건
- 77 정순왕후
- 78 한월당 김상정
- 80 이철영
- 81 교수관
- 82 오청취당
- 83 심정순
- 84 민태원
- 86 윤곤강
- 88 윤석중
- 89 직암 이철승

- 90 철새의 낙원, 천수만입니다



이준호 | 서산문화원장

향토애와 자긍심을 발양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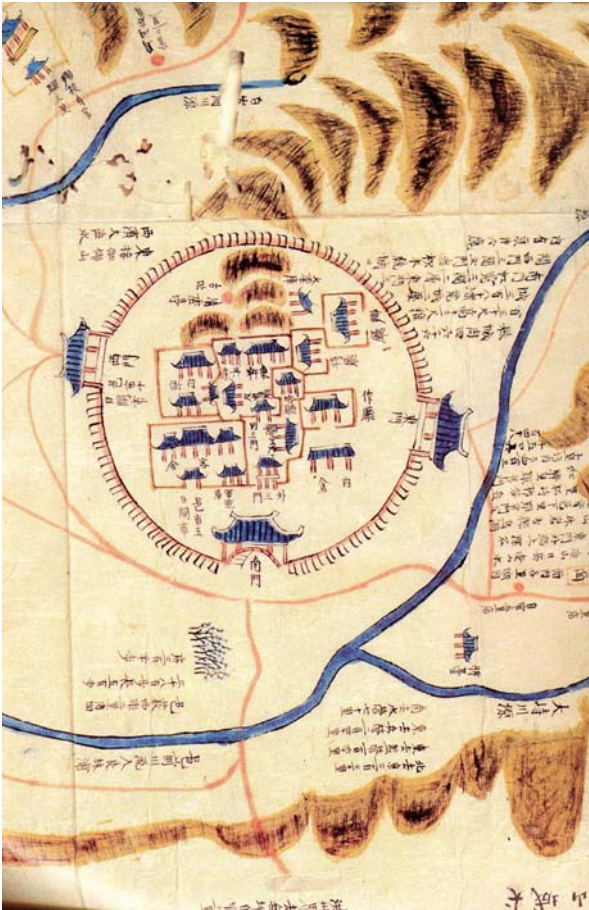
흔히들 21C는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시대의 흐름은 초고속화되어 「디지털」문명을 우려하면서 꿈과 지성을 파는 「드림 소사이어티」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도외시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속에서는 찬란한 문화가 있고 그것은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내는 에너지로 부각되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문화를 발굴 · 계승 · 보존해야 되는 막중한소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때입니다.

이 작은 한 권의 책은 우리 고장의 모습을 조명한 것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기록입니다. 우리 고장의 기본이 되는 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쉽고 간편하게 만든 이유는 시민 모두에게 향토애를 함양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발양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책을 만드느라 힘든 발췌와 집필을 해주신 이강열 학예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의식이 한층 고양되기를 기대하면서 발간사를 마칩니다.

고지도로 본 서산



해미읍성 주변 - 1870년 제작



서산지역 - 1870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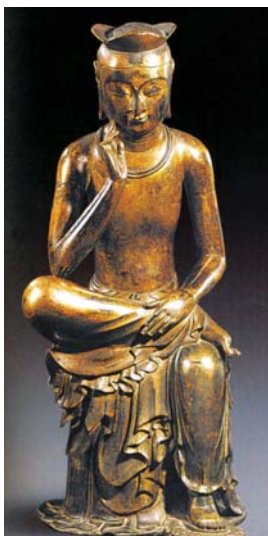
문화재(文化財)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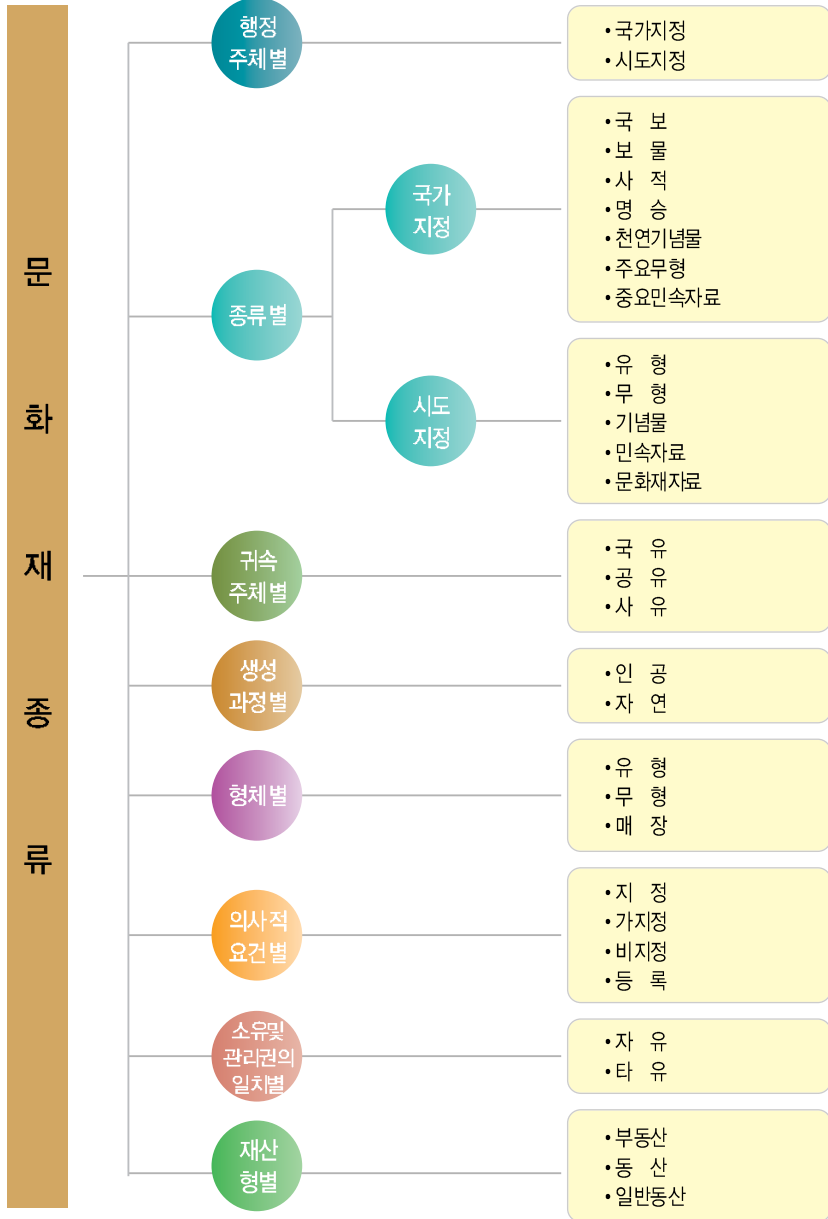
인위적(人爲的)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라고 한다. 문화재는 크게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기념물(記念物), 민속자료(民俗資料)가 있다.

보물(寶物)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국보(國寶)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없는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는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이다.

기념물은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 있다. 이런 지정문화재는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道)에서 관리하는 도지정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된 것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후 관리하고 있다.





표로 보는 문화재 분류

서산(瑞山)의 역사

서산(瑞山)이란 이름은 상서로운 조짐이 많은 땅이란 뜻이다. 우리 지역은 오랜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데, 선사시대의 사람의 흔적은 유적과 유물로 확인된다.

우리지역에 사람이 최초로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다. 이후 신석기시대에는 해안 주변에 살았으며, 조개무지(貝塚)에서 그 흔적이 확인된다. 이들은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생활환경에 최대한 적응하면서 생활한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전 시기보다 인구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마을과 같은 공동생활이 시작하게 된다. 특히 이들 청동기 시대 유적들은 바다와 인접해 있으면서 얕은 구릉에 입지하여 경제생활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시대인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서산지역은 최근 발굴조사된 성과를 토대로 볼 때 지방 세력이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기록에 나오지는 않지만 음암 부장리 출토 금동관을 통해 볼 때 이 지역 일대의 최고 수장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분구묘라는 특징적인 무덤을 만든 세력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서산지역은 백제의 고지로서 기군(基郡-서산), 성대해현(省大兮縣-태안), 지육현(知六縣-지곡), 여춘현(餘淸縣-운산), 우견현(牛見縣-고북)이 있으며, 특히 백제시대 웅진시기(475~538년)에 대중국 교통과 관련하여 많은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로 인해 서산 마애삼존불상을 만들었으며, 백제문화의 수입과 전파로서 서산지역의 중요도가 크게 부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서산지역은 부성군(富城郡)인 서산, 소태현(蘇泰縣)인 태안, 지육현(地育縣)인 지곡면, 여음현(餘邑縣)인 운산, 목우현(目牛縣)인 고북으로 나뉜다. 부성군은 당시 통일신라 말기 대당유학생 출신인 최치원이 부성군태수로 부임해 온 점은 서산지의 중국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라 생각된다.

고려시대 서산지역은 부성군(富城郡)으로 계속 불렸으며 서산시의 일부지역은 홍주(洪州-홍성)에 포함되다가 고려후기 충렬왕(1284년)때 서산정씨 시조인 정인경의 공로로 서산이란 이름이 생겼다. 명칭은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이다. 이후 1308년(고려 고종 34) 서주목(瑞州牧)으로 승격되었다가 1310년(충선왕 2) 서령부(瑞寧府)로 강등된다.

조선시대 1413년(태종 13) 서산군으로 고쳐서 조선후기까지 행정단위로 내려왔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때에는 서산군과 태안군 그리고 해미군을 합쳐서 서산군이 되었다. 그후 1989년 1월 1일에는 서산읍이 서산시로 승격되었고, 서산군은 서산군과 태안군

으로 나누었다

1995년 1월 1일에는 시군통합에 의해 종래의 서산시와 서산군이 통합되어 서산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산지역 지명 변천사】

백 제 시 대	통 일 신 라	고 려 시 대	현 제
기군(基郡)	부성군(富城郡)	부성군(富城郡) → 지서산군사(知瑞山郡事)	서산시
성대해현(省大垓縣)	소태현(蘇泰縣)	소태현(蘇泰縣)	태안군
지육현(知六縣)	지육현(地育縣)	지곡현(地谷縣)	지곡면
여촌현(餘村縣)	여읍현(餘邑縣)	여미현(餘美縣)	운산 · 음암면
우견현(牛見縣)	목우현(目牛縣)	고상(高上) · 정해현(貞海縣)	해미 · 고북면

서산시 문화재 현황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소계	유형	무형	공예품	기념품	민자		
59	14	1	8	3	2	25	10	2	1	9	3	18	2

종별 및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지 정	연 혁
국 가 지 정 문 화 재	국보 84	서산마애삼존불상	운산 용현 산2-10	62. 12. 20	백제말기(6C중엽)
	보물 102	보원사지 석조	운산 용현 150	63. 01. 28	통일신라말~고려초
	보물 103	보원사지 당간지주	운산 용현 105	62. 12. 21	통일신라말~고려초
	보물 104	보원사지 오층석탑	운산 용현 119-1	63. 01. 21	통일신라말~고려초
	보물 105	보원사지 법인국사보승탑	운산 용현 119-2	63. 01. 28	고려 경종3년(978)
	보물 106	보원사지 법인국사보승비	운산 용현 119-2	63. 01. 28	고려 경종3년(978)
	보물 143	개심사 대웅전	운산 신창 1	63. 01. 21	조선 성종15년(1484)
	보물 1264	개심사 영산화괘불탱	운산 신창 1	97. 08. 08	조선 영조48년(1772)
	보물 1619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운산 신창 1	09. 10. 20	고려후기(12~13C)
	사적 116	해미읍성	해미 읍내 32-278필지	63. 01. 21	조선 세종3년(1421)
	사적 316	보원사지	운산 용현 119-170필지	87. 07. 10	통일신라~고려초 창건추정
	사적 475	서산 부장리교분군	음암 부장 219-2	06. 11. 06	백제(4C) [137기의 분구]
중요민속자료 36	정충신장군유물(5점)	지곡 대요 740	78. 06. 22	조선 인조시대	
중요민속자료 198	서산 김기현 가옥	음암 유계 465	84. 12. 24	19C경의 가옥	
도 지 정 문 화 재	유형 13	문수사 극락보전	운산 태봉 40, 산5	73. 12. 24	조선시대
	유형 41	서령관아문 및 동헌	읍내동 492	76. 01. 08	조선 고종8년(1871)
	유형 121	명종대왕태실 및 비	운산 태봉 산6-2	86. 11. 19	조선 중종33년(1538)
	유형 132	서산여미리석불입상	운산 여미 산15-17	89. 12. 29	고려말 추정
	유형 137	서산객사	읍내동 268	91. 12. 03	조선 후기
	유형 146	서산 김두정 묘비	인지 남정 산116-5	95. 10. 07	조선 경종1년(1721)
	유형 184	서산 간월암 목조보살좌상	부석 간월도 16-11	07. 09. 20	조선시대(1600년 전후)
	유형 186	서산 천장사 아미타후불탱화	고북 장요 1	07. 09. 20	조선 정조12년(1788)
	유형 195	서산 동문동 당간지주	동문동 832-34	73. 12. 24 08. 04. 10(분리지정)	고려시대
	유형 196	서산 동문동 5층석탑	동문동 832-14	73. 12. 24 08. 04. 10(분리지정)	고려시대
	무형 26	서산 박침지놀이	음암 탑곡	00. 01. 11	예능보유자 김동익
	무형 27	서산 승무	석림동	00. 01. 11	예능보유자 심화영

종별 및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지 정	연 혁
도 지 정 민 화 재	기념물 63	인지 둔당리 지석묘	인지 둔당 산25-5	86. 11. 19 청동기시대(남방식)
	기념물 68	정순왕후 생가	음암 유계 464	88. 08. 30 조선시대(1649~1659)
	기념물 116	서산향교	동문동 580	75. 02. 05 97. 12. 23 격상 조선 태종6년(1406)
	기념물 117	해미향교	해미 오학 226	75. 02. 05 97. 12. 23 격상 조선 태종7년(1407)
	기념물 169	휴암리 선사유적지	해미 휴암 산8	05. 10. 31 신석기·청동기시대
	기념물 170	송곡사 향나무	인지 애정 495	05. 10. 31 수령 약 550년
	기념물 172	서산 해미읍성 회화나무	해미 읍내 32-2	08. 04. 10 수령 약 300년
	기념물 173	서산향교 은행나무	동문동 580	08. 04. 10 추정수령 약 430년
	기념물 174	서산 여미리 비자나무	운산 여미 280-1	08. 04. 10 추정수령 약 330년
	공예품 34	문수사 금동여래좌불상	운산 태봉 40, 산5	74. 08. 31 고려 충목왕2년(1346)
	민속자료 21	김동진 가옥	고북 가구 267	05. 10. 31 조선시대(1800년경)
	민속자료 22	유상국 가옥	운산 여미 168-1	05. 10. 31 1925년
	민속자료 23	유기방 가옥	운산 여미 203-1	05. 10. 31 1919년
문 화 재 자 료	문화자료 193	일락사 대웅전	해미 황락 3, 24-1	75. 02. 05 조선말기
	문화자료 194	개심사 명부전	운산 신창 1	75. 02. 05 조선 인조24년(1646)
	문화자료 195	부석사	부석 취평 160	75. 02. 05 신라 문무왕17년(663)
	문화자료 199	부석사	지곡 산성 645-2	75. 02. 05 조선 선조대
	문화자료 200	일락사 3층 석탑	해미 황락 3, 24-1	75. 02. 05 고려 추정
	문화자료 202	천장사 7층 석탑	고북 장요 1	75. 02. 05 고려 초기
	문화자료 203	석남동 석불입상	석남동 208-11	75. 02. 05 미상
	문화자료 204	읍내동 귀부석	읍내동 492	75. 02. 05 미상
	문화자료 205	성암서원	읍내동 673-1	75. 02. 05 조선 숙종45년(1719)
	문화자료 206	진총사	지곡 대요 677외 5	75. 03. 23 조선 인조14년(1636)
	문화자료 207	송곡서원	인지 애정 495	75. 02. 05 조선 숙종20년(1694)
	문화자료 208	일락사 철불	해미 황락 3, 24-1	75. 02. 05 미상(수역사 정보박물관)
	문화자료 209	일락사 범종	해미 황락 3, 24-1	75. 02. 05 미상(1970년대 분실)
	문화자료 210	정충신 장군묘	지곡 대요 139-17	75. 02. 05 조선시대(1636)
	문화자료 211	백암사지	운산 용현	75. 02. 05 고려초기로 추정
	문화자료 322	윤시영 홍양일기	읍내동	92. 12. 08 1906년
	문화자료 352	송덕사	부석 강당 312	96. 11. 30 조선 고종1년(1864)
	문화자료 358	개심사 심검당	운산 신창 1	97. 12. 23 조선 성종8년(1477)
등록 문화재	등록문화재 321	동문성당	동문동 665	07. 04. 30 1937년 신축
	등록문화재 338	상흥리 공소	음암 상흥 159-2	07. 07. 03 1919년 신축

휴암리 선사유적지

충청남도지정 기념물 제169호



●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산 8번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68년~70년에 4차례 걸쳐 발굴 조사를 한 곳이다. 휴암리유형이라고 불리는 청동기 시대 집자리 11기가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이외에도 부석유구, 야외노지 등이 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를 비롯하여 반달돌칼, 솥돌, 화살촉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은 B.C 8세경에 만들어진 유적으로 청동기 시대 중기의 문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인지 둔당리 지석묘

충청남도지정 기념물 제63호

●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산 25-5번지

청동기시대 무덤으로 원래 7기의 지석묘가 있었으나, 일제시기에 지석을 깨서 석축재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1기만 남아있는데, 규모는 길이 3.8m, 너비 3m, 두께 0.6~0.9m이며 덮개돌 밑에는 3개의 낮은 받침돌이 있는 바둑판식 지석묘이다.

알아봅시다!!

선사시대 무덤의 종류

지석묘(고인돌)

청동기시대의 무덤양식으로 지상에다 매장을 한 뒤 간석을 세우고 그 위에 넓은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식과 땅속에 매장을 하고 작은 궂돌위에 개석을 올려놓은 땅위에 바둑판식, 역시 땅속에 매장을 하고 궂돌없이 덮개돌만 덮은 개석식 고인돌의 세 종류로 나뉜다.



탁자식 고인돌

널무덤

시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널(棺)을 이용하여 만든 무덤으로 무덤은 땅을 파서 무덤자리를 만들고, 시신을 널에 넣은 후 봉분을 덮는다. 나중에는 널을 보호하기 위한 덧널(槨)이 추가로 만들어진다.



바둑판식 고인돌

독무덤

독(甕)을 사용하여 만든 무덤으로 사람 크기의 전용 독을 사용하기도 하고, 뼈만 추려서 작은 독에 넣기도 한다.



개석식 고인돌



음암 부장리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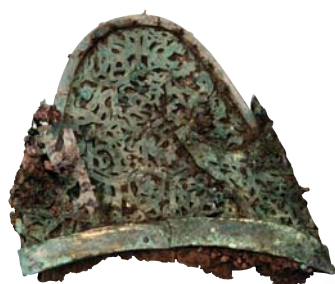
사적 제475호

●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19-10번지

백제시대 대단위 분구묘(13기)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백제시대 관련된 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부장리 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27기와 수혈유구 6기, 백제시대 주거지 39기와 분구묘 13기, 조선시대의 움무덤 83기 등 총 260여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백제시대 분구묘는 흙을 쌓아서 분구를 만들고 그 위에 매장시설을 하는 무덤양식이다. 모두 13기가 확인되었는데, 규모는 한 변의 크기가 약 20~40m 정도이다. 무덤의 형태는 말각방형이며, 주구가 시설되어 있다. 매장주체부는 모두 움무덤으로 덧널을 사용한 것과 덧널 없이 널을 사용한 것이 있다. 무덤에서는 이 지역 일대에서 처음으로 금동관, 철제초두 등 주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현재 고분군은 유적공원으로 정비되고 있다.



1호 분구묘 전경



5호분 출토 금동관



5호분 출토 철제초두



예천동 고분군

- 서산시 예천동 336-25번지 일원
- 조사면적 : 16,400m²

서산 예천동 유적은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유적으로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이르는 서산지역의 역사를 밝힐 수 있어 중요하다.

조사결과 총 16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초기철기시대 옹관묘 1기·토광묘 1기, 백제시대 분구묘 94기·옹관묘 1기, 고려시대 토광묘 1기, 조선시대 주거지 11기·주공군, 시대미상의 주거지 3기·탄요 2기·수혈유구 5기, 토광묘 7기, 구상유구 9기, 성격을 알 수 없는 미상유구 19기, 근현대 교통호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해미면 기지리유적과 음암면 부장리 유적에서도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전기취락 분포와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유적이다. 그 동안 청동기시대와 백제시대를 연결할 수 있는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금번 조사를 통해서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백제시대로 이어지는 문화의 흐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백제시대 유적의 중심을 이루는 분구묘는 총 94기가 확인되었다. 분구묘는 시신을 관에 넣은 다음 널을 만들고, 그 주위로 도랑을 돌린 형태이다. 시신을 넣기 위해서는 나무관을 사용하였으며, 도랑은 단면 U자형 형태를 이루고, 도랑에 토기를 묻기도 하였다. 출토유물은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이중구연호(二重口緣壺), 양이부호(兩耳附壺), 유견호(有肩壺)등의 토기류와 청동제 칼집이 있는 철제단검은 백제시대 유적에서도 출토예가 없는 중요유물이며, 이밖에도 고리큰칼, 길이가 40cm에 이르는 대형의 철제철정, 철모, 철제집게등이 확인되었다. 구슬류는 시신을 넣으면서 의례를 행하는 과정에서 무덤전체에 뿌려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예천동 유적은 이처럼 서산지역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다. 선사, 삼국시대가 주를 이루고, 선사와 역사시대를 연결할 수 있는 초기철기시대의 유적이 주목된다. 특히 서산지역은 최근 음암면 부장리 유적, 해미면 기지리유적에서 대단위 분구묘가 확인되면서 서산지역의 분구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유적보다 빠른 시기의 예천동 유적에서 분구묘가 확인되면서 백제시대 서산지역의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앞으로 분구묘 자료는 백제시대 고분연구와 지방 통치와 관련하여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분구묘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서산 지역의 중요성을 학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21호 분구묘 전경



분구묘 출토 철기류 일괄

대산읍 대로리 명지고분군

●●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이 고분군(古墳群)은 대로리 명지마을의 야산에 위치하며, 현재 명지중학교의 남쪽에 해당한다. 백제 널무덤(土壙墓) 유적으로 예전부터 고분이 있었다고 알려졌고,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1969년 5월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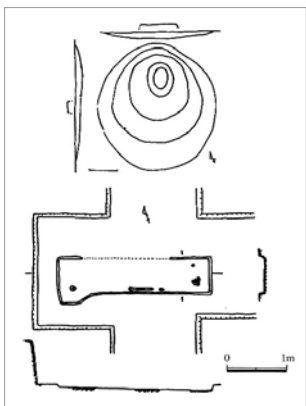
명지리에서는 발굴조사 당시 18기가 있다고 확인되었는데, 이중 3기를 조사하였다. 토광묘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하고, 널(토광)은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었다. 관은 사용하지 않았는지 관의 조립에 사용했던 못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직접 시신을 펴서 묻은 신전장(伸展葬)을 하였다.

1호분은 고분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8×7m의 평면타원형의 봉분을 하고 있다. 토광묘는 길이가 2.7m, 너비가 0.6m, 깊이가 6~20cm이다. 유물은 농기구 도구인 철제 쇠스랑과 고리큰칼이 출토되었다. 2호분은 남북 10m, 동서 8m, 높이 0.4m의 봉분을 가지고 있고, 널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철정과 고리큰칼, 철제낫, 토기가 출토되었다. 3호분은 봉분의 유실이 심한 상태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형토기 1점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고분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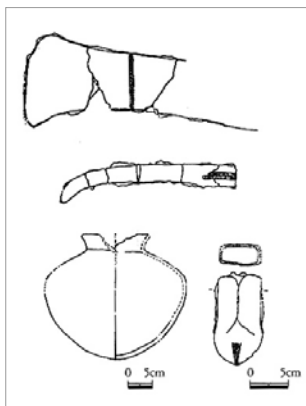
대산지역에서 토광묘의 존재는 일찍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 명지고분군 조사를 통해 무덤의 봉분이 있는 백제토광묘로서 학계에 그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 서산지역에서 발견된 음암 부장리 고분군, 해미 기지리 고분군, 예천동 고분군 등은 공통적으로 분구묘(墳丘墓)라는 유적인데, 이 명지 고분군도 무덤에 봉분이 있는 분구묘라고 판단된다.

대산지역은 백제의 옛땅으로서 앞으로 명지 고분군과 같은 중요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서산지역의 백제시대 중요한 곳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명지리 1호 토광묘



명지리 2호 토광묘 출토유물

서산지역의 요지(窯址) 유적

요지는 그릇을 굽던 가마터 유적이다. 요지유적들 중에서는 사기점, 사장골등과 같은 지명이 많은데, 이는 그릇과 관련된 사기라는 명칭과 관련이 있다.

서산지역 내 시대와 가마터 성격을 알 수 있는 곳이 요지유적은 모두 29곳이다. 요지는 크게 청자요지, 분청사기요지, 백자요지, 토기요지로 나뉜다. 시대적으로는 고려시대 청자요지, 고려시대~조선시대의 토기요지, 조선전기의 분청사기 요지, 조선전기~후기에 이르는 백자요지로 나뉜다. 우리지역에는 청자요지는 두 군데로 성연면 오사리 청자요지와 대산을 화곡리 청자요지가 있다. 특히 오사리 청자요지의 중요도는 매우 높다. 지곡면 무장리 토기요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유적으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초기에까지 지속적으로 토기를 만들었던 흔적을 확인하였다.



오사리 백자요지



화곡리 청자유물

토기요지와 발굴조사 당시 확인된 지곡면 무장리 분청사기 요지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초기로 넘어가는 요업(窯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백자요지는 모두 23곳으로 그 수가 제일 많다. 그 분포범위 또한 서산지역 거의 전 지역에 걸쳐 확인되는 만큼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수요와 공급인한 요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연면 오사리 지역과 인근의 지곡면 무장리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요업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하나의 장인집단으로서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성연면 오사리 청자요지

●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2구 산 88-1번지 일원

고려시대 청자요지로 대표적인 전남 강진, 전북 부안의 청자요지와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데 성연면 오사리 2구에 있는 오사리 청자요지이다. 오사리(吾沙里)란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모래사(沙)의 지명이 들어가는 곳은 그릇과 관련된 지명으로 조선시대에는 사장동(沙場洞)으로 불린 곳이다.

유적은 오래전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적과 관련된 유물 일부가 밖으로 노출되어 쉽게 요지유물을 발견할 수 있다. 확인되는 유물은 청자요지와 관련된 것으로 가마의 벽을 만들었던 기와, 청자, 갑발, 토기 등이 확인된다. 특히 청자유물의 경우 초기 청자에서 보이는 해무리굽 청자가 다수이고, 상품의 청자를 만들기 위해



오사리 청자요지



발견된 요지관련 유물들(청자, 갑발 등)

사용했던 갑발은 주목된다.

청자가마는 여러 기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범위는 상당히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자요지 서쪽 계곡에는 조선시대 백자요지 유적도 있어 고려시대 청자를 만들던 전통이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여진다.

오사리 청자유적은 안타깝게도 많이 훼손되어 있다. 고려시대 초기 청자에 대한 좋은 자료로서 앞으로 잘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각 철거 전 모습



보호각 철거 후 모습

서산마애삼존불상

국보 제84호

●●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2-10번지

서산마애삼존불상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58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발견하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문화재 조사를 하던 중 만난 나무꾼인 동네 주민이 인(印)바위라는 곳에 옛날 힘이 센 장사가 부처님을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가보니 깊은 산중에 마애삼존불상이 있었다고 한다. 서산마애삼존불상은 백제시대 마애불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백제의 미소로 알려져 있다. 암벽에 부조로 새긴 마애불상으로 중앙에 여래입상, 좌측에 보살입상, 우측에 반가사유상을 조각하였다. 여래입상(2.8m)은 연꽃 대좌위에 당당한 체구로 서 있으며, 법의는 통견으로 양어깨에 걸쳤다. 특히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음을 짓게 만드는 백제인의 장인정신이 놀랍다. 좌측의 보살입상은 법화경의 제화갈라보살로 보며, 우측의 미륵반가사유상은 오른손을 턱에 받치고 있다. 좌측의 제화갈라보살은 과거, 중앙의 여래입상은 현재, 우측의 반가사유상은 미래를 의미한다.

■ 관리사무소 041)660-2538

알아봅시다!!

마애불(磨崖佛)은 절벽에 새긴 불상을 의미한다.

불상의 명칭과 설명

제화갈라보살 : 과거세에 출현하여 석가모니불에게 수기를 준 부처

미륵보살 : 내세(來世)에 성불하여 사바세계에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

통견(通肩) : 불상이나 승려의 옷 모양새 가운데 양 어깨를 모두 덮은 경우

편단우견(偏袒右肩) : 편단(偏袒)이란 말 자체가 한쪽 팔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옷차림



발굴조사 전 보원사지 모습



발굴조사 후 보원사지

보원사지(普願寺址)

사적 제316호

●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번지

가야산 북쪽에 위치한 보원사지는 서산마애삼존불상으로부터 1.2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원사지는 통일신라시대인 827년에 처음 기록이 나오고 있어 그 이전부터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신라시대 화엄십찰로 불리 정도의 사찰이었으며, 고려 광종 때 법인국사가 파견될 정도로 국가에서 관리하였던 큰 사찰이었다. 고려사의 기록에 보원사 계단(戒壇)에서 경율시험을 봤다는 기록이 있다(1031년). 조선시대에 보원사가 상왕산에 있다는 기록을 볼 때 16세기까지 존재하였다. 이 당시 만든 경판이 인근 개심사에 보관되어 있다. 이후 보원사는 강당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예전의 화려했던 사찰은 점차 쇠락하여 그 명맥만 유지하여왔다. 현재 사지 내에는 보물 제102호인 석조(石槽), 제103호 당간지주(幢竿支柱), 제104호 오층석탑(五層石塔), 제105호 법인국사보승탑(法印國師寶乘塔), 제106호 법인국사보승탑비(法印國師寶乘塔碑)의 문화재가 있다. 2005년에 이처럼 과거 화려했던 보원사지에 대한 정비와 하고자 계획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보원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 관리사무소 041)664-8305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알아봅시다!!

당간지주(幢竿支柱)

당간지주는 기도(祈禱)나 불교의식 때 부처와 보살의 성덕을 표시하는 기(幢)의 깃대(幢竿)를 지탱하기 위하여 세운 두 개의 받침대로, 형태는 지주(支柱) 밑에 사각형의 대석(臺石)이 마련되고 지주 사이에 원형 간대(竿臺)를 놓아 지주를 고정시킨 것이다.

탑

원래 탑파(塔婆)의 줄인말로 산스크리트어로 스투파(Stupa)에서 유래하며 탑은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나중에 탑을 많이 만들면서 부처님 사리가 모자라게 되자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넣게 되는데 이것을 법신사리, 부처님을 형상화한 불상같은 것은 변신사리라고 한다. 탑은 탑을 받치는 기단부와 탑의 몸체를 이루는 탑신부, 윗부분에 해당하는 상륜부의 세부분으로 나뉜다. 기단부는 상대기단과 하대 기단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하대 기단은 생략되기도 하고, 탑신부는 탑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면석과 면석위에서 올려져 있는 옥개석의 갯수를 통해 탑의 층수를 이루게 된다. 상륜부는 노반, 복발, 양화, 보주, 용차, 수개, 부연의 여러 부분으로 세분된다.

부도(浮屠)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한 묘탑으로 봉안된 승려의 이름을 모를 때에는 부도라고 말하고, 보원사지의 법안국사 보승탑처럼 승려의 이름을 알 때에는 이름이 붙여진다.

법안국사(法印國師)

법안국사 탄문(900~975)은 휘가 탄문, 자는 대오, 성은 고씨로 광주 고봉 출생으로 15세가 되던 해 신엄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탄문은 광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선융합을 주창하면서 불교계를 주도하였던 인물이었다. 975년 경종이 즉위하자 김정언에게 비문을 찬하도록 하였고, 탑비는 한윤이 쓰고, 김승림이 각자하여 978년 4월에 법안국사 보승탑비를 완성하게 된다.



석조



당간지주



범인국사 보승탑 및 보승담배



오층석탑



오층석탑 내 팔부중 탁본



개심사(開心寺)

●●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1번지

개심사는 가야산(667.6m) 줄기의 상왕산(307.2m) 기슭에 자리잡은 사찰로 창건연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다. 다만 개심사에 전해지는 사적기에 의하면 백제 의자왕 14년(654)에 해감국사가 창건하였고, 고려 충정왕 2년(1350)에 처능대사가 중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 성종 6년(1475) 충청남도 절도사가 사냥을 왔다가 산불을 내 개심사가 불탔다. 현재의 대웅전은 성종 6년(1475)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9년이 지난 성종 15년(1484)에 중창되었는데, 1914년에 대웅전 해체 보수 시 목서명이 발견되었다. 기록은 없지만 심검당도 이때 중창된 것으로 추정한다. 명부전은 조선 고종 26년(1889)에 죽포 김설제(竹圃 金設濟)가 작성한 개심사 중창 수리기의 내용에 ‘순치삼년 명부전신설’이란 기록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인조 24년(1646)에 신축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사찰내에는 보물 제143호 대웅전(大雄殿), 보물 제1264호 영산회괘불탱(靈山會掛佛幀),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94호 명부전(冥府殿), 제358호 심검당(尋劍堂)이 지정문화재이다.



개심사



대웅전



명부전



괘불탱



알아봅시다!!

사찰내 건물의 명칭

대웅전(大雄殿)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는 건물이다. 대웅보전은 대웅전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대웅이란 마하비라를 한역한 말로 법화경에서는 석가모니를 위대한 영웅이라고 일컬은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고 좌우에는 협시불(脇侍佛-불상이나 불화에서 본존(本尊)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을 모시는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세우기도 한다.

명부전(冥府殿)

지장보살을 모시고 죽은 사람의 넋을 인도하여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기능을 갖는 건물이다.

심검당(尋劍堂)

지혜의 칼을 찾는 뜻의 건물이다.

개심사 영산회 괘불탱

괘불이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 불교 그림이다. 조선 영조 48년(1772)에 그려진 이 그림은 임금과 왕비, 세자의 만수 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석가불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도이다. 크기가 10m가 넘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기 어렵고 부처님 오신날에만 볼 수 있다.



문수사(文殊寺)

●●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 40번지

문수사는 운산면 상왕산 서편아래 태봉리에 위치한 고찰로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다. 1973년도에 극락보전내에 안치된 금동아미타좌불상을 조사 중 불상의 복장에서 발견한 발원문(發願文)의 명문에 고려 충목왕2년(1346)이란 기록문이 나와 고려 충목왕 2년 이전에 창건된 사찰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극락보전은 사찰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구전(口傳)과 건축양식으로 보아 본래의 건물은 없어지고, 금동불상만 따로 간직되어 오던 중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뒤 새로 건립하여 봉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3호 극락보전, 충청남도지정 공예품 제34호 금동여래좌불상이 지정문화재이다.



알아봅시다!!

건축용어에 대한 해설

건물의 규모를 말할 때 정면 ○칸, 측면 ○칸으로 말한다.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칸이다. 즉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5개이면 네칸 건물이 되는 것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정면 ○칸이 되고,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측면 ○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붕의 구조를 말하는데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이 대부분이다. 아래 그림은 이들 지붕의 구조를 사진으로 보는 것이다.



팔작지붕 부석사 무량수전



맞배지붕 수덕사 대웅전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지붕을 안전하게 떠받치기 위해서는 모든 기둥에 힘이 골고루 가야한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사이에 힘을 나누고 건물의 외관을 돋보이도록 공포(拱包)를 하는데 그 방법에 따라 크게 주심포식(柱心包式), 다포식(多包式)으로 나뉜다.



주심포 양식의 부석사 무량수전



다포 양식의 화엄사 각황전



부석사(浮石寺)

●●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131번지

부석사는 경북 영주의 부석사와 같은 전설과 같은 이름을 갖는 사찰로 신라 문무왕 17년(677)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고려시대 류금현(柳金顯)이란 분이 내려와 건물을 짓고 살았는데, 그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적감(赤感)이란 승려가 건물로 사찰로 바뀌고, 사찰이 마치 바다 가운데 있는 바위섬위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사찰 이름도 부석사(浮石寺)가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 뒤 무학대사가 중수하였고, 1995년도에 부석사 극락전의 대들보 속에서 발견된 기록문으로 보아 현재 건물들은 일제 말에 중수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사찰내에는 극락전, 안양루, 그리고 같은 건물로 연결된 심검당·무량수각이 남아 있다.



알아봅시다!!

무량수전(無量壽殿) 불교에서 서방 극락정토의 주재자인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는 건물이다. 극락보전(極樂寶殿)·무량전·보광명전(普光明殿)·아미타전(阿彌陀殿)이라고 불린다.

비로전(毘盧殿) 대적광전(大寂光殿), 화엄전(華嚴殿)으로도 불리며,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본존으로 모시는 건물이다.

아미타불(阿彌陀佛) 서방정토(西方淨土)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불로 무량수불(無量壽佛)·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 한다.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 석가의 진신을 높여부르는 칭호로 노자나불 혹은 자나불이라고도 한다. 산스크리트어로 태양이란 뜻인데, 불지(佛智)의 광대무변함을 상징하는 화엄종(華嚴宗)의 본존불(本尊佛)이다.



천장사(天藏寺)

●●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산 1번지

백제 무왕 34년(633)에 담화선사가 수도하기 위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조선말 고승 경화선사와 근세의 고승 송만공(1871~1946) 대사가 이곳에서 불법을 계승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최인호의 『길 없는 길』이라는 소설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다. 사찰내에는 만공선사가 도를 닦았던 작은 선방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인법당(因法堂) 앞에는 충청남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202호 7층 석탑과 최근에는 아미타 후불탱화가 충청남도지정 유형 문화재 제186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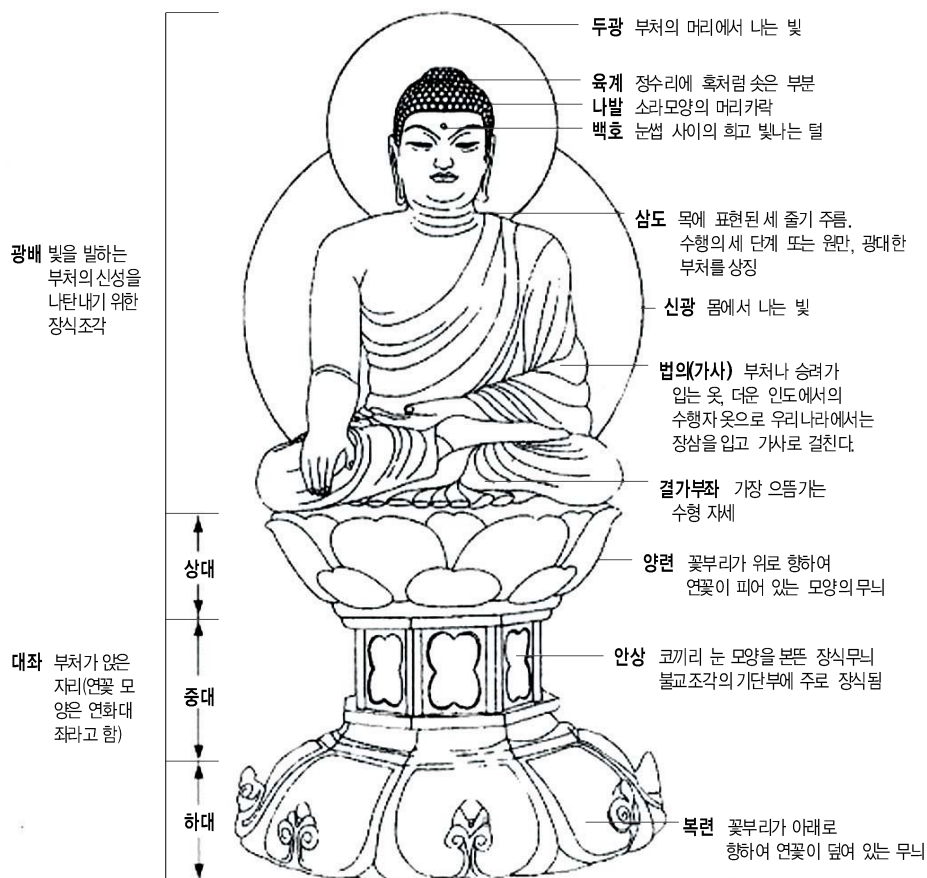


7층 석탑



아미타 후불탱화

불상의 세부명칭



일락사(日樂寺)



철불



3층석탑

●● 서산시 해미면 향락리 3번지

사찰에 전하는 사기(寺記)와 1970년대 이후에 발간된 각종 서산군지와 해미읍지의 기록에 신라 문무왕 3년(663)에 의현선사가 창건하였으며, 조선 선종 18년(1487)에 중수하였고, 중종 25년(1530)과 인조 27년(1649)에 보수 하였다. 사찰 경내에서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대좌와 초석이 발견되었으며, 고려시대 석탑 양식을 잘 보여 주는 3층 석탑은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00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외에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93호 대웅전,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08호 철불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일락사 대웅전



동문동 오층석탑 및 당간지주는 옛날 대사동으로 불리던 곳으로 고려시대 큰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당간지주와 오층석탑만이 남아있다.

동문동 당간지주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95호

●● 서산시 동문동 832-34

현재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원래 크기는 396cm이다. 당간지주 사이의 폭은 45cm정도이다. 간대는 중앙에 간을 받치는 부분을 직경 20cm 정도로 파고 기둥자리의 원자(圓座)를 양각하였다. 장식적인 위장이나 아무런 조각이 없으며 1개의 통석으로 비교적 잘고 소박하게 조성된 것으로 보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문동 5층석탑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96호

●● 서산시 동문동 832-14

당간지주와 약 5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층석탑의 현재 3층만이 남아있다. 현재 2중기단의 갑석 위에 올려져 있는 탑층은 3층까지만 남아 있고 4층과 5층, 상륜부 등은 남아 있지 않다. 옥개석과 답신은 모두 1개의 통석으로 되어 있고, 옥개받침은 4단이다. 옥개석 네 귀퉁이가 반전되었고 우아한 체감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석탑이다.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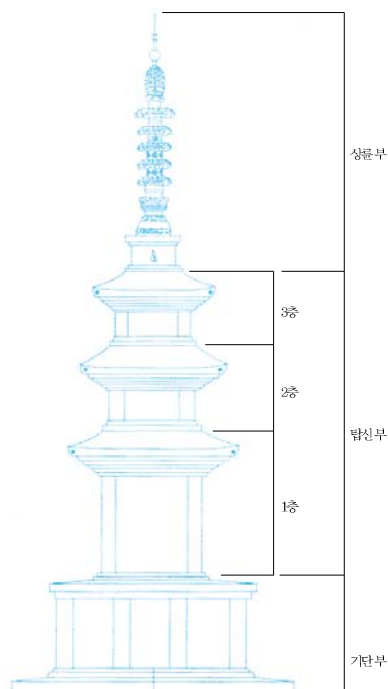
석탑의 세부명칭

탑은 크게 기단부(基壇部), 탑신부(塔身部), 상륜부(相輪部)로 나누어 진다.

기단부는 탑의 제일 밑 부분으로 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석탑의 육중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지하에 기초를 다지고 난 뒤 그 위에 지대석, 하대저석, 기단뿔개돌, 탕주, 면석, 기단뿔개돌, 옥신괘의 순서로 만든다.

탑신부는 탑의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옥신괘의 윗부분부터 해당된다. 면석위에 옥개석이라고 하는 지붕돌의 개수로 탑의 층수를 센다. 탑을 장식하기 위해 풍경구멍을 뚫어 풍경을 달고, 물꿇기 홈을 만들어 빗물이 탑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상륜부는 탑의 장식부분으로서 가장 높은 곳인데, 찰주라고 불리는 원뿔형태의 쇠로 여기에 노반, 복발, 양화, 보륜, 보개, 수연, 보주, 용차를 끼워 장식한다. 대부분 탑신부에 있는 유물들은 없어지고 찰주만 남아있는 형태가 많다.





백암사지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11호

●●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5번지

백암사지는 가야산(667.8m) 줄기의 옥양봉(621.4m) 종턱에 위치한다. 전설에 의하면 옛 보원사에는 99개소의 암자가 있었고, 100 번째 암자인 백암사를 지은 후 보원사의 모든 암자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전해진다. 현재 이곳에는 약 2,000여 평에 당시 쌓은 것으로 보이는 석축, 석등과 석탑의 일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제작 기법과 모양을 보아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간월암 목조보살좌상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84호

●●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6-11번지

조선 초 무학대사가 창건하였으며, 송만공대사가 중건하였다고 전해지는 간월암은 다른 암자와는 달리 간조시에는 육지와 연결 되고 만조시에는 물위에 떠있는 섬처럼 느껴지는 암자이다. 간월암 목조보살좌상은 1600년 전후에 만든 것으로 규모가 작은 것을 볼때 협시불상으로 판단된다.



여미리 석불입상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2호

●●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산 15-17번지

운산면 여미리 이문안 마을 야산 아래에 있는 석불입상이다. 이 석불은 1970년도에 현 위치에서 1km쯤 떨어진 용장천(龍漳川) 정비사업때 발견되었는데 주민들이 지금의 위치에 세운 것으로 목이 부러졌던 것을 복원하였다. 이 불상은 화강암으로 조성하였는데 앞면에는 얼굴과 손등을 비교적 섬세히 조각한 반면 뒷면은 거친 정(釘)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전체적인 조각수법이 형식에 흐르고 불상의 귀가 어깨까지 내려온 모양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지방화한 양식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총 높이는 310cm, 얼굴길이 90cm, 몸길이 230cm, 어깨폭 76cm, 귀길이 40c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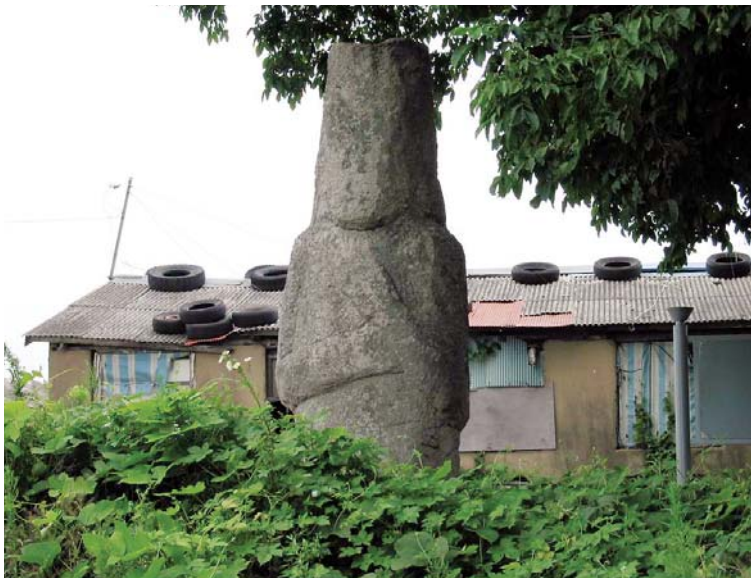


석남동 석불입상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03호

●● 서산시 석남동 208-11번지

석남동의 마을 가운데 아산에 위치한 석보살입상(石菩薩立像)이다. 이곳의 석불입상은 충청남도 일대에 유행하던 석조불상의 형식이다. 대체적으로 석불의 전면에 두부와 몸체에 약산의 형상을 조각하여 표현했고 단순하고 육중한 감을 표현했다. 머리에 높은 보관을 쓰고 아무런 조각이 되어 있지 않으며 얼굴 모양은 정방형이면서 도식적인 면을 보여준다. 이목구비는 마멸이 심해서 잘 알아볼 수 없으며 크기에 비해서 작게 표현되어 있다. 뒷면과 측면에는 전혀 조각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유행했던 주석형 석불입상 조성기법을 보여 주는 불상이다. 불상의 크기는 높이 3.2m 이다.





해미읍성

사적 제116호

●●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6번지

규모 | 성곽길이 1,800m, 높이 5m의 타원형, 성내면적 136,592㎡

연혁 | 해미읍성은 조선 태종 18년부터 세종3년(1421)까지 3년간에 걸쳐 쌓았고, 성종 22년(1491)에 완전한 규모를 갖추게 된다. 처음에는 충청병마절도사영의 병영성이었다가 효종 2년(1651)에 절도사영이 청주로 옮겨가면서 230여년 만에 절도사영으로서의 역할이 끝난다. 이후 호서좌영(湖西左營)을 설치하고 무장이 현감인 해미현감을 겸한 겸영장(兼營將) 근무하게 되면서 읍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내포지방의 천주교 박해 때 1,000여명의 신도를 이곳에서 처형하게 된다. 그 때 박해와 관련하여 호야나무(충청남도지정 기념물 제172호), 자릿돌, 여섯굴 순교성지로 해마다 수많은 순례객이 찾아오고 있다.

시설 | 문은 남문인 진남루(鎭南樓), 동문은 잠양루(岑陽樓), 서문은 지성루(枳城樓), 북문은 암문형식으로 문루가 없다. 해자는 성벽에서 8m쯤 간격을 두고 윗 너비가 10~11m, 아랫너비 5m, 깊이 1.4~2.4m의 규모로 북벽 쪽에 발굴하여 복원하였다. 남문의 서측으로는 2개의 적대를 가진 치성(雉城)이 길이 7.9~7.7m, 너비 7.5~7.6m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동헌을 비롯하여 아사(衙舍) 및 작청(作廳) 등의 건물이 있다.

축성방법 | 성벽의 바깥은 돌로 쌓고 안쪽은 잡석과 흙으로 뒷채움을 하였으며, 밖의 석축은 하대상소(下大上小)의 돌과 성석 사용과 쌓기돌을 많이 끼운 수법을 볼 수 있다.



1977년



1989년



1996년



2008년

【해미읍성의 변화】

알아봅시다!!

읍성 지방의 관청과 사람들이 사는 곳을 둘러 쌓은 성으로 읍(邑)이라는 말은 성으로 둘러 쌓인 마을을 의미한다. 읍성은 지방 행정 관청이 있는 마을에 들어서며, 행정적인 기능과 군사적인 기능을 함께 갖는 형태로서, 평시에는 행정중심지가 되고 비상시에는 방어기지가 된다.

객사 객사는 조선시대의 지방 관아 건물로 고을 수령이 임금의 위패를 모시고 예를 올리는 정청과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외국의 사신이 머물렀던 좌우익실로 구성되어 있다.

동헌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집무 및 생활공간을 통칭하여 말하는 곳이다.

서령관아문 및 동헌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41호



●● 서산시 읍내동 49번지

규모 | 동헌은 정면 5칸, 측면 2칸(면적은 121㎡)이며, 관아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37㎡)

연혁 | 서산읍 성의 관아로 객관, 동헌, 누정 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아문과 동헌만 남아 있다. 현재 동헌과 관아문은 조선 고종 4년(1867)에 당시 서산군수 오병선이 다시 지은 것이다. 1978년부터 1979년까지 2년 동안 동헌을 서산시청 서쪽으로 옮겨지었고 관아문도 보수하였다. 관아문(官衙門)은 조선시대에 서산군 관아의 정문으로 문루(門樓)형식으로 축조된 건물로 서령군문(瑞寧郡門)이란 현판이 달려있다. 서령이란 이름은 고려 충선왕 2년(1310)에 붙여진 서산시의 옛 지명 '서령부'에서 연유한 것이다.





서산 객사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37호

●● 서산시 읍내동 268번지

규모 | 앞면 8칸, 옆면 2칸

연혁 | 서산읍성이 만들어질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앞서 살펴본 동헌과 관아문의 건축기법과 같아 같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1910년에 임금의 위패를 충청남도에 기증하고 서산읍사무소, 서산농촌지도소, 서산문화원으로 사용하다가 1994년 고증을 받아 복원·정비하였다.

서산향교

충청남도지정 기념물 제116호

●● 서산시 동문동 580번지

조선 태종 1412~1415년 사이에 향교가 처음 세워졌는데, 그 당시 서산읍성(현재 서산시청 자리)의 서문 1리에 있었다고 한다. 이후 지역 유생들이 현재 자리로 옮길 것을 몇 차례 건의하여 1574년 옮겨지었다. 향교는 이후 여러 차례 건물을 다시 고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향교는 제향공간인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 유학자 7명과 우리나라 성현 18명 등 25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대성전 양 옆으로는 동무와 서무가 있다. 내삼문을 내려가면 명륜당, 동재와 서재가 U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명륜당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는 충청남도지정 기념물 제173호로 서산향교가 현재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심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령 430년 은행나무



해미향교

충청남도지정 기념물 제17호



●●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226번지

조선 태종 7년 전국적으로 향교들이 건립될 당시인 1407년에 건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90년 대성전 건물을 고쳤다는 기록이 최초로 나오며, 이후 여러차례 대성전 건물을 고쳤다. 홍살문을 지나면 느티나무 군락이 나오는데, 이 중에는 수령 300년 이상의 나무도 있어 향교의 연혁을 말해 준다. 건물은 명륜당, 명륜당의 좌우로 동·서재가 있으며, 명륜당의 뒤로는 대성전이 있다. 현재 향교에는 고문서 3권이 보존되어 있어, 향교의 역사를 말해준다.

알아봅시다!!

향교

- 인재를 육성하고 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국의 주, 부, 군, 현마다 설립했던 관학
- 대성전(大成殿) : 공자의 성훈과 유덕을 추모하고 봉사하는 곳
- 동·서무 : 대성전 전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며 대성전 좌측에 배치된 건물을 동무, 우측에 배치된 건물을 서무라고 한다.
- 명륜당(明倫堂) : 인륜을 밝힌다는 의미로 공자가 만년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 동·서재 : 유생들이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곳이다.

서원

조선 중기 이후 명현(明賢)을 제사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세운 사설기관(私設機關)



성암서원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05호



● 서산시 읍내동 673-1번지

성암서원은 고려후기 공민왕대의 문신 사암 유숙(思菴 柳叔, 1316~1368)과 조선 중기 인조~효종대의 문신인 학주 김홍욱(鶴洲 金弘郁 1602~1654)을 배향한 서원으로, 1719년(숙종 45)에 건립되고, 2년 뒤인 1721년(경종 1)에 사액(賜額) 받았다. 고종 8년(1871)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건물이 철거되고 위패를 땅속에 봉안하였다가 1924년 재건하였다. 건물은 좌우로 동·서재가 있고, 본당에 오르는 계단에 서원중건비가, 내삼문을 지나면 본당 건물이 있다.

배향인물인 유숙은 본관이 서산으로 해미면 삼송리에서 출생하였고, 사후에 덕산땅에 묻혔다. 유숙의 가문들은 여말선초에 절의 있는 인물들을 배출하여 이름은 높은 가문이다. 김홍욱은 그의 증조부때 서산에 들어왔고,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대동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의 사후에 국가적인 포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림들이 발의로 성암서원이 세워지게 되었다. 성암서원이 세워지면서 유숙과 함께 배향되었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일(中丁日)에 제향을 지낸다.

송곡서원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07호

●●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495번지

송곡사는 서산배출의 향현들을 제향하는 향현사(鄕賢祠)로서 서산에서 제일 먼저 건립되었다. 이 사우의 건립시기는 1694년(숙종 20)으로 성암서원(1719년 건립)보다도 20여 년 먼저 건립되었고, 창건될 때는 서령유씨(瑞寧柳氏)가 주동이 되고 서산정씨(瑞山鄭氏)가 이에 협조하는 형태였다고 추측된다. 이후 1871년 서원훼철령때 훼철되었다가 1910년 복원되었다.

이 곳에 배향된 인물들은 원외랑 정신보(員外郎 鄭臣保), 양렬공 정인경(襄烈公 鄭仁卿), 금헌 유방택(琴軒 柳方澤, 후송 윤황(後松 尹璜), 저정 유백유(稔亭 柳伯濡, 위촌 유백순(葦村 柳伯尊), 무동처사 유운(櫛洞處士 柳潤), 단구자 김적(丹丘子 金積), 미암 김위재(迷庵 金偉材)이다. 이중 윤황을 제외한 배향인물은 서산출신이거나 서산지방에 살았던 명현들이다. 건물은 강학공간인 동·서재와 제향 공간인 사우가 있다. 매년 2월과 8월 종정일(終丁日)에 제향을 올린다. 송곡사 앞 마당에는 두 그루의 향나무가 있는데 수령 약 550년으로 1420년(세종 2) 송곡서원 배향인물인 유운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향나무는 충청남도지정 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다.





부성사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99호



●●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645-2번지

893년(신라 진성여왕 7) 부성군 태수를 지낸 고운 최치원(崔致遠, 857~?)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이 사우의 명칭은 서산의 옛 이름이자 그가 태수를 지냈던 유서를 따라 붙여진 것이다. 조선 선조 때 그의 덕망을 추모하던 유림들이 사우를 건립하고 '도충사'라 하였고, 그 뒤 흥선대원군에 의해 훼철되었다가 1907년 후손에 의하여 재건되었다. 1913년에는 유림들이 뜻을 모아 향사우로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자리 잡고 이름도 부성사라 칭했다.

부성사는 내·외삼문, 동·서 양재, 사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문은 솟을 대문 형식이다.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주심포양식의 팔작지붕이고, 사우 내부에는 최치원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사우안에는 '과선각'(過仙閣)이라는 편액이 있고, 최근에는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기린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송덕사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352호

●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312번지

송덕사는 태조의 넷째 아들인 회안대군의 위패를 봉안하는 사우이다. 회안대군(懷安大君, 1364~1421)은 태조의 아들로 이름은 방간(芳幹)이며, 어머니는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 韓氏)이다. 고려 왕조에서 군기사소윤(軍器寺少尹)을 역임하였고,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1392년 회안군에 봉군되었다. 1398년 회안공으로 개읍되면서 의흥삼군부좌군절제사가 되었으며, 이른바 제2차 왕자의 난으로 1400년(정종 2) 토산(兎山)으로 유배되었다가 본관지인 전주로 자원하여 이배된다. 당시 회안대군의 2자인 창령군(1389~?)이 모부인인 밀양 황씨를 따라 부석면 강당리로 이거한 것으로 후손들은 전하고 있다.

그 후 누차에 걸친 태종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회안대군이 전주에서의 유배생활을 하하다가 창녕군의 권유로 1413년(태종 13) 상경하던 중 은진의 여사에서 죽었다. 이에 창녕군은 전주로 가서 회안대군의 3년 상을 자낸 후에 1422년(세종 4) 신위를 이곳 부석으로 옮겨와 봉향하였다고 한다. 송덕사는 바로 이 사당이 유래가 되어 사우로 재건된 것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일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부에는 우물마루를 깔고 위패를 안치하였다. 1988년에 신축된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에 홀처마 맞배지붕이고, 외삼문을 들어서면 좌측으로 송덕사 연혁비가 우측으로는 송덕사묘정비(1985년 건립)가 건립되어 있다.



진충사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06호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677번지

정충신 장군관련 중요민속자료 제36호(갑옷, 사명기, 영정, 향로 · 향합), 문화재자료 210호 정충신 장군묘가 문화재로 지정

충무공(忠武公) 정충신(鄭忠信, 1576~1636)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정충신 장군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금성(錦城), 자는 가행(可行), 호는 만운(晩雲)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목사 권율의 휘하에서 종군하였고, 17세의 어린 나이로 기지를 발휘해 왜군으로 가득한 길을 단신으로 뚫고 장계를 전달하게 된다. 이해 가을에 무과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인조 1년(1623) 안주목사로 방어사를 겸임하게 된다. 다음해 이괄의 난 때에는 도원수 장만의 휘하에서 전부대장으로 이괄의 군사를 황주와 서울의 안산에서 무찔러 진무공신 1등으로 금남군에 봉하여 졌다. 1627년 정묘호란때에는 부원수를 지냈고, 1633년 조정에서 후금에 대한 세폐의 증가에 반대하여 후금과의 단교를 위하여 사신을 보내게 되자 이를 반대하여 당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장연으로 이배되었다. 곧 유배에서 풀려나와 이듬해 포도대장·경상도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1636년 병이 심해져 죽었다. 광주 경렬사에 제향되었으며, 죽은 뒤 29년 만인 1665년(숙종 11)에 충무공(忠武公) 시호를 받았다. 영정과 위패를 종손이 보관하면서 제향을 드렸는데, 한 때 도난 당하기도 하는 등 보관이 허술한 것을 당진 정미면에 거주하던 5세손 정세오(鄭世奧)가 사당을 지었다. 1897년 9세손 정세철(鄭世弼)이 현 위치인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로 이간한다. '금남군 정충신묘(錦南君 鄭忠信廟)'가 현재 진중사로부터 북쪽 300m 지점에 있으며, 1968년 사유를 복원한 후 1969년에 진중사로 개칭하면서 1971년 사유를 개축한다.





정충신의 유물 소개

- ① 갑옷은 1630년 5월 1일 수군부원수로서 가도(假島)의 병란을 토벌하고자 출정할 때 인조가 궁시 및 검과 더불어 하사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두루마기와 흡사하다. 총길이 114cm, 화장 46.5cm로 목둘레는 U자형으로 둥글게 파져 있다.
- ② 향로 1개는 좌우에 손잡이가 달린 노쇠향로로 주위에는 문양을 부조하였고, 다리는 삼각으로 처리하였다. 향합 1개도 동그런 형태에 삼각의 다리를 하였으며, 뚜껑은 중앙이 약간 솟은 형인데, 한가운데 꼭지 손잡이가 달려 있다.
- ③ 서군사명기는 길이 138cm, 너비 55.5cm로서 저황색 운보단 바탕에 '서군사명(西軍司命)'이라고 쓰여 있다. 가장자리는 세로 16.5cm, 가로 19cm로 주황색 비단을 붙였다.
- ④ 영점 1점은 팔분 좌안상으로 호상에 가볍게 걸터앉은 자세이고, 복청색 운문단 상복차림에 문사각(紋紗角) 사모를 쓴 모습이다. 초상에는 '금남군시충무정공유상(錦南君 鄭忠武公遺像)'이라는 제침이 묵서되어 있는데, 이로 미루어 시호가 내려진 1685년 8월 11일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정충신 묘소와 묘비

진중사에서 약 1km 떨어진 뒷산 국사봉 남향사면에 정충신의 묘와 묘비(높이 119cm, 폭 48.5cm, 두께 21cm)가 자리하고 있다. 묘비에는 '貞敬夫人河陽李氏之墓 贈崇政大夫敦寧府事行竭誠奮威出氣 効力振武功臣 正憲大夫 平安道兵馬節度使 八道副元帥 錦南君 鄭忠信忠武公墓' 라고 음각되어 있고, 비좌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상석에 사패지지 받은 지역범위가 기록되어 있다. 묘에는 200근 투구와 50근 갑주(甲冑) 유고와 중량이 20근에 7척 장검을 부장품으로 넣었다고 한다.

김기현 가옥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99호



●●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465번지

동향한 전통 목조 한옥으로 건축의 기법과 목부재의 상태, 가옥의 배치 등으로 보아 19세기 중엽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옥은 ㄷ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사랑채가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ㄱ자형의 평면을 이룬 가옥이다. 행랑채는 7칸 규모로 왼쪽 끝에 바깥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부엌과 광,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향한 안채는 중문을 들어서서 안마당의 오른쪽에 있다. 이는 대부분의 중·상류 주택이 몸채를 안마당 건너편에 두는 것과는 달리 일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는 안채보다 간결한 구조를 한 3칸 집으로, 사랑채 남쪽에 단 차양지붕이 돋보인다. 안채의 뒤뜰에는 3칸의 초가집이 있는데 일종의 공부방이었을 것이다.

알아봅시다!!

전통한옥 가옥의 명칭

- 안채 : 살림과 육아를 담당하는 주부와 여성들의 생활공간으로 안방과 작은방, 건넌방, 안대청, 부엌으로 구성된다.
- 사랑채 : 주인을 포함한 남성들의 사색·독서·문중집회·접대를 위한 공간으로 사랑방, 침방, 사랑대청, 누마루, 서고등으로 구성된다.
- 행랑채 : 행랑은 대문간에 붙어있는 방을 말하며, 행랑채는 행랑방이 시설된 집채를 가리킨다. 행랑채의 내부공간은 행랑방, 곳간, 광, 고방(생활용구와 물품을 보관하는 부속건물)으로 이루어진다.

정순왕후 생가

충청남도지정 기념물 제68호



●●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464번지

조선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1745~1805)가 출생한 곳으로 왕비가 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서씨가 죽자 영조 35년(1759) 왕비에 책봉되었다. 이 집은 조선 효종 때 승지와 예조참의 등을 지낸 학주 김홍욱이 효종과 친분이 있었는데, 그가 노부를 모시고 있음을 알고 아버지인 김적에게 왕이 내린 집으로 효종 시절인 1649~1659년 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은 ㄱ자형 평면을 갖춘 집으로, 앞면 5칸·옆면 2칸 규모 건물 좌우에 각각 3칸씩 덧붙여 ㄷ자형 구조를 하고 있다. 남쪽에는 앞면 5칸·옆면 1칸의 별채를 배치하였는데 ㄱ자형 평면을 하고 있다.

김동진 가옥

충청남도지정 민속자료 제21호

●●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267번지

김동진가옥은 안채, 사랑채, 중문채, 대문채와 21칸 규모의 한식목조로 된 창고채, 불록조의 창고건물이 있으며, 토담이 집을 둘러싸고 있다. 이 건물은 원래 ㄷ자형태였는데, 나중에 안채가 축소된 형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상묵 가옥

충청남도지정 민속자료 제22호

●●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168-1번지

유상묵가옥은 여미리 이문안이란 마을에 있는 전통한옥이다. 1930년대 지어진 것으로 왼쪽에는 사랑채, 오른쪽에는 안채가 ㄱ자 형태 건물이다. 사랑채와 안채는 벽돌담으로 나누어져있고, 토담으로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고풍스럽다.



유기방 가옥

충청남도지정 민속자료 제23호

●●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203-1번지

유철호의 증조부인 유상묵이 1919년 지은 건물로 왼쪽에는 안채 오른쪽에는 사랑채가 있다. 안채는 정면 7칸, 측면 2칸으로 마루를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있다. 담은 토담으로 만들었으며, 1989년에는 중문채를 헐어내고 여기에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였다.



명종대왕태실 및 비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21호



●●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 6-2번지

조선 제13대 임금인 명종(1534~1567)의 태(胎)를 넣어둔 태실이다. 태실은 32개의 부채꼴로 된 화강석 판석을 깔아 그 위 8각 돌난간을 세우고, 중앙에 종형(鐘形)의 태실과 태실 위에 팔각 옥개석을 올려놓았다.

태실의 서북편에 비석이 3기가 설치되었는데, 남쪽에 설치된 비가 태실을 표시한 비로 '대군춘령 아기씨태실' 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 연대는 명종이 태어난 4년 후인 중종 33년(1538) 2월 2일이며, 북쪽에 설치된 비는 '왕자전하태실'로 숙종 37년(1711)에 건립한 것이다. 명종대왕의 태실은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채 방치되었던 것을 1975년에 복원하였다.

김두징 묘비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64호

●● 서산시 인지면 남정리 산 116-5번지

김두징(金斗徵)은 인조24년(1646)에 태어나 숙종 4년(1678)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사후 이조참판으로 증직되었다. 조부는 김자진(金自珍), 부는 김홍필(金弘弼)이다. 김두징의 아들 김유경(金有慶)은 영조 때 대사헌(大司憲), 공조판서(工曹判書), 도승지(都承旨) 등을 역임하였는데, 부친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여 중국의 해중오석(海中烏石)을 구해 경종 1년(1721)에 묘비를 세웠다.



읍내동 귀부석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04호

●● 서산시 읍내동 492번지

서산관아문의 정면 양편에 놓여진 2개의 귀부(龜趺)이다. 현재 귀부만 남아 있는데, 원래 있었던 비신이 없어서 조성 연대를 알 수 없다. 2개의 귀부는 본래 시청 앞 분수대 연못 옆에 있었던 것을 1982년 시가지 정비 사업 때 현재의 자리로 옮긴 것이다. 귀부는 머리가 거북의 머리라기 보다 해태(海苔) 머리 모양에 가깝게 조각되었고, 입에는 보주를 물고 힘있게 치켜든 형상을 하고 있다.



윤시영 홍양일기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322호

●● 서산시 읍내동

홍양일기는 윤시영 선생이 홍주군수로 재임하였던 1906년 4월부터 5월까지 당시 홍주군 관할의 군정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빈민구호 활동과 당시 행정, 회계문서와 관련된 책이다. 홍양일기 외 6책 등 총 7권의 서책은 일제 강점기 초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서산 동문동성당

등록문화재 제321호(2007. 4. 30지정)

●● 서산시 동문동 665의 2

소유자 : (재)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동문동성당은 충남 서산지방 선교를 위해 1908년 충남 결성군 구항면 공리에 본당인 수곡성당이 설립되어 초대신부 폴리(Desideratus Polly) 심응영 신부가 부임한 이래 제5대 신부인 바로(Barraux) 베드로 신부가 1934년에 동문동 현 본당의 부지를 매입하여 1937년에 신축 완료한 건물이다.



서산 상흥리공소

등록문화재 제338호(2007. 7. 3지정)

●● 서산시 음암면 상흥리 159-2

소유자 : (재)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상흥리공소는 1919년에 신축된 건물로 전통적인 한옥을 바실리카 양식의 평면구조에 맞추어 평면을 변형하여 이용하였고, 양쪽 측면에 회랑을 설치하였다. 본 건물은 서양의 종교공간에 한옥을 활용한 귀중한 자료이다.



천주교 해미순교성지

●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866년부터 1872년 사이 천주교박해 때 1천여명의 무명 신자를 생매장한 곳으로 천주교인들의 순례가 끊이지 않는 순교성지이다. 박해 당시 신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순교탑이 있다.



서산 박첨지놀이

충청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6호

●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박첨지 놀이는 고려시대 때부터 양반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면서 서민층에 널리 즐겨 놀았던 민속놀이로 일명 『꼭두각시놀이』라고 불린다. 지역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두레의 현대적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박첨지 놀이는 양반층과 위정자들의 얼굴을 바가지로 만들어 극화시킨 마당극이다. 막 뒤에서 여러 사람이 인형을 움직이며 관객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주인공 박첨지를 통해 가부장적이고 퇴폐적인 양반 사회의 모순을 해학과 철학적인 유머로 승화시켜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심화영 승무

충청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7호

● 서산시 석남동

승무는 승복을 입고 추는 춤이어서 중춤이라 하나 불교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춤 가운데

하나이다. 승무는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치고, 백옥 같은 고깔과 버선코가 유난히 돋보이는 차림으로 염불, 도드리, 타령, 굿거리, 자진모리 등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을 춘다. 소맷자락을 뿌리는 동작이나 휘날리게 하는 팔동작은 매우 특이하며 반주로는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북이 사용된다.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고 심화영씨가 그 맥을 이어오던 중 2009년에 타계하였다. 이 가문은 전국에 이름난 전통 예술가 가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부친은 심정순(1873~1937)으로 창극운동 초기의 활동가이며, 판소리 중고제의 마지막 전수자이다. 현재는 고 심화영씨의 외손녀인 이애리가 전수자로서 맥을 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산중학교 향토관

●● 서산시 대산을 대신리

대산중학교 향토관은 1950년대 대산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역 곳곳에 많은 유물이 훼손되어 출토되고 있었다. 그 당시 교장이신 김기풍 선생님께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문화재 수집운동을 전개한 것이 지금의 향토관에 유물이 소장된 연유이다.

출토유물은 선사시대인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비롯하여 역사시대인 백제에서 조선 및 지금은 사라져 구하기 힘든 근대 민속유물을 망라한 총 1100여점에 이르는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1960년대에는 소장유물이 학계에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초기 향토관은 유물은 전시공간의 협소함과, 시설의 낙후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리모델링을 하여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대산지역의 문화를 지키는 산실로서 대산중학교 향토관은 학생들에게는 교육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는 애향심을 갖게 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 대산중학교 041)669-1791



서산향토사료관

●● 서산시 읍내동 516번지

서산향토사료관은 서산의 역사자료와 향토사료들을 수집하고 전시하기 위해 2003년 서산문화원 3층에 개관하였다. 지역의 생활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시기별로 전시하고 있다.

역사/자연/생활문화관에서는 서산의 역사, 인물, 자연환경, 특산물 등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정보와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문화재관은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지, 박첨지놀이 등 지역의 사적과 문화재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유물관에는 구석기,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별로 구분하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과 기증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국경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서산을 알리고 배울 수 있는 지역문화의 산실이자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서산문화원 041)669-5050



최초의 서산군수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서산의 통일신라시대 지명은 부성군으로 문헌에 전하는 최초의 서산지역 군수는 최치원이다. 그의 출생은 857년(헌안왕 1) 이고, 생몰연대 미상이다. 신라말기 학자·문장가이며, 본관은 경주, 자는 고운(孤雲) 혹은 해운(海雲)이다. 경주 사랑부(沙梁部) 혹은 본피부(本彼部) 출신으로 견일(肩逸)의 아들로 신라 골품제에서 6두품으로 신라의 유교를 대표 할만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최씨가문 출신이다. 특히 신라말기 3최의 한 사람이다.

그의 성장과정에서 12세(경문왕8년 868년)에 중국 당나라에 유학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당나라 유학을 하면서 공부에 매진하여 18세(874년)에 예부시랑 배찬이 주관한 빈공과에 급제한다. 18~20세때에는 2년간 낙양을 유랑하면서 시작에 몰두-금체시 5수 1권, 오언칠언금체시 30수 1권을 짓고, 20세(헌강왕2년 876년)에는 당나라 선주표수

현위가 되었다. 이때 공사간에 지은 글들을 추려 중산복 궤잡1부 5권을 내었다. 21세(877년)에는 겨울에 표현수위를 사직하고, 양양 이위의 문객이 되었고, 곧이어 회남절도사 고변의 추천으로 관역순관이 되었다. 23세(879년)에는 중국 당나라시대 최고의 민란인 황소의 반란이 일어났다. 고변이 제도행영병마도통이 되어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 서기의 책임을 맡았고, 그 뒤 4년간 고변의 군막에서 표·장·서계·격물 등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다. 그 공적으로 승무랑 전중시어사내공봉

으로 도통순관에 승차되었으며, 겸하여 포장으로 자금어대를 하사받았다. 29세(885년~17년동안 당나라에 머물)에 귀국하였다.

귀국한 후 29세(헌강왕, 885년)에는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에 임명되었고, 30세(886년)에는 대승복사비문의 명문을 남겼고, 당나라의 저작들을 정리하여 국왕에게 진헌하였다. 33세(진성여왕 3, 889년)에는 전국이 내란에 빠졌고, 34세~36세(890~982년)에는 대산군(전북 태인), 철령군(경남 함양), 부성군(충남 서산)의 태수를 역임하였다. 37세(893년)에 하정사에 임명되었으나, 도둑들의 횡행으로 가지 못하고 그 뒤에 다시 사신으로 당나라에 간 일이 있었다. 38세(894년)에는 시무책 10여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려 문란한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하였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40여세의 나이로 관직을 버리고 은거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 행적은 경주의 남산, 강주(의성의 빙산), 함천의 청량사, 지리산 쌍계사, 함포현(창원의 별서), 동래의 해운대를 유람하였다. 만년에 모형인 승 형준 및 정현사와 도우를 맺고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머물렀다. 생몰연대는 미상이나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에 의하면 52세인 908년(효공왕 12)말까지 생존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그는 1020년(고려 현종 11년)에 내사례 추증되고, 1021년 문창후로 추시되어 문묘에 배향되었다.

조선시대에 태인의 무성서원, 함양의 백연서원, 영평의 고운영당, 대구 해안현의 계림사등에 제향되었다. 우리지역에도 부성사(지곡면 산성리 소재)에 배향되었다.

그는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계원필경』 20권, 『금체시』 5수1권, 『오언칠언금체시』 100수 1권, 『잡시부』 30수 1권, 『중산복계집』 1부 5권, 『사록집』 1권, 문집 30권이 있다. 사서로는 『부석존자전』 1권, 『법장화상전』 1권, 『석이정전』, 『석순응전』, 『사산비명』이 있는데, 이중 『계원필경』, 『법장화상전』, 『사산비명』 뿐이고 그 외는 『동문선』에 시문 약간, 사기 등에 기·원문·찬 등 그 편린만 전할 뿐이다.

서산(瑞山) 이름이 이 분으로 생겼다

정인경(1237~1305)



정인경(鄭仁卿, 1237~1305)은 관은 서주(瑞州 서산)로 인주(麟州)의 수령을 지낸 정신보(鄭臣保)의 아들이다. 아버지인 정신보(鄭臣保)가 1237년(고종 24)에 송나라에서 서산 간월도(看月島)로 정착하였고, 정인경은 이 곳에서 태어났다.

정인경은 어려서부터 씩씩하고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어 무관직에 이름을 올렸다. 1256년(고종 43)에 몽고(蒙古)의 군마가 서울(개경) 지역까지 난입하였을 때, 16세의 나이로 모집에 응하여 종군하였다. 이때 몽고군을 기습하여 공로를 세워 제교(諸校)의 관직에 임명되었다. 1259년 19세 어사대(御史臺) 사록(司錄)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판교위(判校尉)가 되었다.

1261년(원종 2) 상(喪)을 당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산에 초막을 치고 지키면서 3년 동안 집에 내려오질 않았다. 1264년 간월도(看月島)

에 정사(精舍)를 지어 머무르면서, 백운(白雲)의 뜻을 본받고자 망운대(望雲臺)를 앞 봉우리에 세웠으며 집앞의 도랑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항상 연못을 보면서 반성을 하였다.

1269년(원종 10) 충렬왕(忠烈王)이 태자로 있을 때 원으로 귀국시 임연(林衍)이 태자를 살해할 정보를 입수하여 태자를 다시 원경에 돌아가 머물도록 하고 이를 원나라 조정에 알렸다. 이를 통해 그는 원나라 언어도 능숙했으므로 가능했다고 한다. 이후 태자가 무사히 귀국해 충렬왕이 되었다.

1274년에는 임금의 은총이 더욱 두터워 금오위정용장군(金吾衛正勇將軍)이 승진하게 되었다.

1280년 40세에 왕이 군부판서 춘궁익위 판전(軍簿判書 春宮翊衛判典)으로 올려주고 노비 200인과 토지 20결(結)을 내리고 성(姓)을 서산(瑞山) 정으로 쓰게 하였다.

1281년(충렬왕 7) 41세에 용호장군응양장군(龍虎將軍鷹揚將軍)이 되었는데, 사직(辭職)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282년(충렬왕 8) 9월 친증(親從)장군으로 왕명을 받고 요동 심양으로 나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하여 데려왔다. 이어 대장군에 승진하였다가 이듬해 3월 또다시 왕명을 받아 심양에 나아가 유랑하여 갓거나 난리를 피하여 간 백성들을 조사하여 데려왔다.

1283년 43세에 지전법사사(知典法司事), 천우위대호군(天牛衛大護軍)으로 노비 50인을 바치고 서산군(瑞山郡)을 다시 세웠다.

1288년(충렬왕 14) 48세에 세자원빈(世子元賓)이 되었다. 책안사훈도형벽상사녹권을 받았다. 원(元)으로부터 공신(功臣)으로 책봉되어 죄를 열 번 짓기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자손(子孫)과 후사(後嗣)도 보호를 받는다.

1289년 49세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가 되었다. 삼사사(三司使)에 임명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밀직사부사 겸 전법판서(密直司副使兼典法判書)로 옮겼다. 추부(秋部, 刑部)는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곳이어서 반드시 적임자를 골라 관직을 주었기 때문에 세 차례나 이 직책을 겸하였다. 여러 차례 옮겨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가 되고, 얼마 뒤 우상시(右常侍)로 옮겼다.

1290년(충렬왕 16)에 왕이 동녕부(東寧府)를 폐지하고 그 땅을 우리나라에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정인경은 황제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황제가 승인하게 되었다. 왕이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특별로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인 그를 서북면도첨휘사(西北面都添衛使) 광정대부판삼사상장군지도첨의찬성사에 임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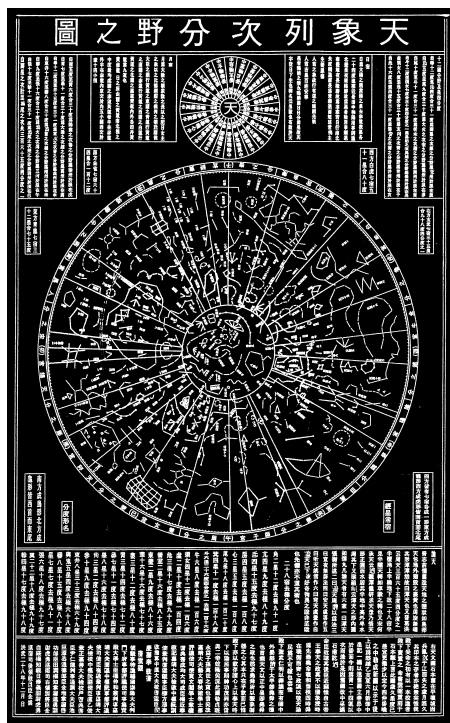
1299년 59세에 판삼사천도첨의문하시랑 상호군판전리사사(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한다)의 벼슬을 그만 두었다. 3월에 임금이 옛날의 공로를 생각하여 판삼사사(判三司使)를 제수하고 다시 나와 근무하도록 하였다. 7월에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에 임명되고, 9월에는 참리(參理)가 되었으며, 12월에는 찬성사(贊成事)가 되었다. 이 해 하정사(賀正使)로 원(元)의 조정에 들어가 도당(都堂)에서 의논한 많은 조목을 상세히 듣고 돌아와서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1305년 9월에 임금이 이전의 노고를 뒤이어 기념하면서 벽상 삼한 삼중대광 추성정책안사공신 도첨의 중찬을 더하여 영예롭게 하였다. 이해 9월에 병이 들어 12월 17일 집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66세이다. 임금이 부음을 듣고 매우 슬퍼하고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장례 일을 돌보게 하였다. 이듬해 2월 19일 박현(朴顯)에 장례지냈는데, 추증된 시호는 양렬(襄烈)이다.

정인경은 원 간섭기 아래에서 원에 오가면서 일을 잘 처리하여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인경은 황제에 신년을 축하하는 사절로서 세 차례나 다녀왔으며, 또 1279년(충렬왕 2) 7월에는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연경에 다녀오기도 했다. 또한 1299년(충렬왕 25) 4월에는 몽고인 인후(印侯)가 원나라 조정에 허황한 일을 무고하여 고려에 핍박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그가 파견되었으며, 5월에 다시 황제에게 은혜에 감사하다는 표문을 올릴때에도 그가 파견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가 당시 고려와 몽고 사이에서 외교면에 있어 많은 공을 세웠음을 알려 준다. 특히 서산이란 이름이 이분으로 인해 생겼음은 꼭 상기하여야 한다.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든

금헌(琴軒) 류방택(柳方澤) (1320~1402)



류방택은 현대에 와서 새롭게 조명되는 인물이다. 고려말 절의 있던 인물로서 서령류씨로 서산과 관련되며, 지금의 만원짜리 지폐의 뒷면에 있는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든 천문학자이다.

류방택(柳方澤, 1320~1402)은 서산류씨로 지는 윤보, 호를 금헌(琴軒)이라 하였다. 유성신의 장남으로 1320년(충숙왕 7) 서산 구치산 아래 양리촌에서 출생하였다.

33세인 고려 공민왕1년(1352년) 섭산원(종8품)벼슬로 관직에 나아간다. 42세때에 홍건적이 서울과 강화를 침범하자 혼란 중에 국력이 없어, 공이 스스로 지은 역서를 강화병마사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였는데, 난후에 그 정밀함이 알려져 유명해졌다. 1362년(공민왕 11)에 서산으로 하향하여 학문을 연마하다가 천거로 사천감판가로 등용되었고, 48세에는 서운관 권지주부(임시직)가 된 후 서운관 주부의 직을 맡게 된다.

53세 때에는 조봉랑, 55세에는 중부시승으로 전임하면서 서운관을 겸직 통직랑으로 봉해진다. 56세에는 주정이 되고 57세에는 중헌대부 사재령 등을 거치면서 73세때 조선이 개국된다. 이 무렵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전경

벼슬을 그만두고 서산으로 내려갔었다.

76세에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게 되는데, 태조가 여러 번 불러 부득이 상경하여 양촌 권근, 중직대부 설경수 등과 24기의 절조를 만들어 그 공으로 개국공신 1등이 주어졌으나 받지 않고 개성 취령산 기모방에 은거하여 고려의 멸망을 슬퍼하였다 한다.

1402년(태종 2) 두 아들에게 ‘나는 고려사람이다. 송도에서 죽을 테니 내 묘에는 봉분도 만들지 말고 비도 세우지 말라’고 유언하고 세상을 마쳤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 백유는 어려서 목은 이색에게 수학하였고, 생원, 진사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3남인 백순은 생원시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성,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원래 석본이 평양에 있었으나 전란중에 강에 빠져 잃어버렸다고 한다. 조선을 건국한 그때 평양 석각본의 인본을 바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문도가 세월이 오래되어 그 도수가 차이가 나므로 서운관에 명하여 그 값을 새로 측정하여 고쳐 새겼다고 한다. 이때 참여한 사람은 모두 12명으로 양촌 권근은 문인으로 천문도를 설명하는 글을 썼지만 천문학자는 아니고, 류방택이 추산을 하였다 하여 천문계산을 책임진 책임자였다.

2000년 한국천문연구원서 한국천문학의 소중한 유산인 천상열차분야지도 제작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금현 류방택 선생의 큰 업적과 뜻을 기리기 위해 발견한 소행성에 류방택별로 명명하였다.

인지면 애정리에는 도지정 문화재 제207호인 송곡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9분의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중의 한분에 류방택 선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개관한 류방택 천문관은 이러한 연유로 송곡사 옆에 있다.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은 천문기상과학에 관한 옛 유물을 비롯, 최첨단 별자리 관측장비를 갖추고 있어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태조 이성계의 스승

무학대사(1327~1405)



무학대사기념비(인지면 애정리 소재)

무학대사는 인지면 둔당리 출생이라고 전한다. 그는 고려말 조선초기의 역사의 격동기를 살다간 인물이며, 태조 이성계의 스승으로 그 이름이 높다. 무학대사와 관련된 설화들이 많은데, 특히 서산지역에 이와 관련된 설화가 많이 전하고 있다. 학돌재는 무학대사가 탄생한 곳이라고 전하며, 학바위는 학이 무학대사를 품고 있었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무학대사는 1327년 고려 충숙왕 14년에 태어났다. 전하는 설화에 의하면 무학대사의 아버지가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었다. 군수가 그 부인을 관아에서 불러 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관아에 도착하여 군수가 얼굴빛이 창백하여 물은 즉 관아에 오는 도중 아이를 낳아서 그렇다고 했다. 군수가 아이를 어떻게 했냐고 물었고, 그리하여 급히 아이 낳은 곳을 가 보았더니 학이 아이를 품고 있었다고 하여

이 아이 이름을 춤출 무(舞) 학(鶴)인 무학으로 지었다고 전한다.

18세 되던 해에 송광사 소지선사에게 출가하여 이후 용문산 해명국사에게 사사를 받았다. 이후 수행에 정진하면서 부도암, 묘향산 금강굴에 머물렀다. 27세 때에는 원나라에 유학하여 연경에서 지공화상에서 사사받고, 이 와중에 나옹선사를 만났다. 귀국하여 천성산 원효암에 머물고 있던

나옹선사를 찾아갔고 또 다시 신광사에서 나옹선사를 만났다.

35세인 공민왕 10년(1361) 나옹선사와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도를 닦았다. 47세에는 처음 출가 하였던 송광사 주지를 하게 되고, 나옹선사가 의발을 전해주었다. 이는 선종에서 법을 전하는 표징으로 이를 통해 확실한 사제지간이 된다. 지금도 지공화상, 나옹선사, 무학대사 3화상의 탕화가 그려지게 된 이유이다.

50세에는 나옹선사가 회암사로 초청을 하게 되고, 수좌가 된다. 58세인 우왕 10년(1384년) 석왕사에서 이성계가 꿈에 대한 풀이를 무학대사에게 물어보게 된다. '꿈에 만집의 닭이 한꺼번에 울어 보이며, 천집의 다듬이 소리가 일시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는 것도 보이고, 거울이 떨어지는 것도 보였습니다. 또 허물어진 집에 들어가서 서까래 세 개를 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라고 물어 보았다. 이를 듣고 대사는 이성계가 장차 왕이 될 인물이라고 말해준다.

1392년 왕사로 책봉된 후 계룡산 일대를 수도의 후보지를 살피기도 하였는데, 1394년 한양의 지세를 살피던 중, 삼각산, 인왕산, 남산의 지세를 보고 한양을 새 도읍지로 정하였다. 이는 풍수 지리적인 입지에 의해 조선초기에 기틀을 잡은 큰 일이었다. 이후에도 태조 이성계의 곁에 있으면서 큰일이 있을때마다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77세에는 금강산의 진불암에 머물게 되고, 1405년 79세의 나이로 금강산 금장암에서 입적하였다.

지금도 간월도는 무학대사와 관련된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데, 간월도에서 나오는 어리굴젓은 이성계에게 진상하였다고도 하며, 간월도 어리굴젓 상표중에 무학표도 이런 이유에서 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려말 조선초기의 격동기를 살다간 무학대사는 조선건국과 관련된 태조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었던 선사중의 한 분이다.

충무공 정충신 (1576~1636)



정충신은 자는 가행(可行), 호는 만운(晩雲)으로 금천군(錦川君) 윤(綸)의 아들이다. 1576년(선조 9년)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정충신은 원래 광주의 아전이었다고 하고, 야담에는 정충신의 아버지가 광주 향청의 좌수였다고 한다.

정충신은 임진왜란때에 광주목사로 있던 권율의 통인 노릇을 하였는데, 권목사의 총애를 받아 17세의 어린 나이로 왜군들 사이를 뚫고 장계를 행재소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곳에서 이항복(李恒福)의 추천으로 가을에 행재소에서 실시하는 무과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여러 관직을 거치게 된다. 광해군때 조정에서 정충신을 권주위(建州衛)에 보내어 호국(胡國)의 정세를 살피게 하였는데, 호국의 여러 추장들은 그의 당당한 태도와 지략에 감복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선조 29년 이항복(李恒福)이 적중(賊中)의 사정과 정사(正使)가 탈출한 곡절을 조정에 알리기 위해 적중을 왕래한 정충신과 함께 대궐에 왔다는 사실

이다. 정충신은 이때 부산의 왜영에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선조 39년에는 변방의 여진족의 동태파악을 위하여 정충신이 파견되어 그가 작성한 문견록(聞見錄)에 의하여 정책을 논의하였다. 광해군 2년에는 북방 오랑캐 노추의 동정을 살피는데 보을하 첨사(浦乙下僉使) 정충신의 치보가 큰 역할을 하였고, 광해군 11년에 드디어 오랑캐의 사절로 뽑혀 노추에 가게되었는데, 이때 마침 중병에 걸려 무산되었다. 그후로도 광해군 13년 여진과의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광해군대 북방외교를 이끌었다.

1623(인조 1)년 안주목사로 방어사를 겸임하던 무렵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도원수 장만(張晩)은 정충신을 불러 대책을 상의하였다. 이때 그는 삼책(三策)을 말하고, 이괄은 셋길로 경도(京都)를 취하는 하책을 쓸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이 말이 적중하였다. 안현에 먼저 진을 치고 기다리다 이괄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개가를 이루어냈다. 이때의 공으로 진무 공신(振武功臣) 27인중 장만(張晩)·

남이흥(南以興)과 함께 1등에 세 자급(資級)을 올려 받았고, 금남군(錦南君)에 봉해졌다. 그 후로도 인조조 국방과 관련한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정충신이 있었다.

1624년(인조 2) 7월 조정에서는 평안병사 자리를 놓고 천거를 하는 기록이 있다. 정충신이 이 직임에 적합할 것이다.”라고 하여 평안병사에 제수하였다.

평안병사 정충신은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하였으나 또다시 병으로 인하여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인조는 정충신을 위해 어약을 하사하는 등 그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보여줬다.

정충신의 활약은 정묘호란에서도 빛을 발하였다. 청 군대의 진로였던 평산에서 군대를 주둔하고 목책을 설치하며 대비하여 결국 청 기마병이 퇴각하도록 하였으며 용골성에서 청나라 병사들을 물리쳤고, 의주에 머물고 있는 청군의 현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때 정충신은 신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여하여, 인조 5년 9월에 포상을 받았다. 그후로도 부원수 정충신은 국방의 안전을 돌보는 직책에 있으면서 외적의 동태를 살피고 백성들의 안위를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했다.

1633년 조정에서 후금에 대한 시폐를 거절하고 청과 절교(絶交)할 것을 결정하여 이 사실을 청조에 알리려고 金大乾을 사신으로 보내자 정충신은 재고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당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장연으로 이배되었다. 그러나 곧 유배에서 풀려나와 포도대장·경상도병마절도사를 지냈는데 병이 심해져 1636년 세상을 뜨고 말았다.

천문(天文) 지리 복서(卜筮) 의술(醫術) 등 다방면에 해박하고, 청렴하기로도 이름이 높았다. 문집은 《만운집》이 있고, 저서로 《백사북천일록(白沙北遷日錄)》《금남집(錦南集)》 등이 전해진다.

정충신이 대요리의 진중사에 배향된 것은 묘소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금성정씨는 전라남도 광주에 세거하고 있었는데, 정충신이 1633년 당진에 유배된 인연으로 말년을 서산 대산에서 은거하다가 대요리의 지세를 살펴보고 묘소를 정하면서 그 자손이 이 지역에 세거하게 되었다. 이는 정충신의 유사(遺事) 중 1633년(인조 11) 전리(田里)에 방귀(放婦)되어 있을 때 서산 마힐봉(현재의 국사봉) 아래의 한곳을 정해놓고 자제들에게 반드시 이곳에 장사 지내라고 한 말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대요리 일대는 이팔 집안의 땅이었는데, 정충신이 이팔의 난 진압에 공을 세운 후 이 지역을 사패지로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정충신의 유언대로 대요리 국사봉 산록에 묘소를 정하고, 대요리에서 금성정씨 집안의 가계를 이은 것은 정충신의 아들 반(磐)·빙(礮)·문(汶) 3형제 중 차자인 정빙(鄭陞)이었다. 정충신이 죽은 뒤 29년 만인 1685년(숙종 11)에 충무공(忠武公) 시호를 받고, 영정과 위패를 종손이 보관하면서 제향을 드렸는데, 한 때 도난당하기도 하는 등 보관이 허술하여 당진 정미면에 거주하던 5세손 정세오(鄭世奧)가 사당을 지었다가 1897년 9세손 정세칠(鄭世七)이 현위치인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로 이전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중수와 개축 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같은 단장을 통해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206호로 지정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사우내에 영정, 투구, 갑옷, 향합, 향로 서군사령기(西軍司令旗) 등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다.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 (생몰년 미상)

안견(安堅, 생몰년 미상)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 화가이다. 본관은 지곡(池谷), 자는 가도(可度) 또는 득수(得守), 호는 현동재(玄洞子) 또는 주경(朱耕)이다. 세종연간(1419~1450)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문종과 단종을 거쳐 세조 때까지도 화원으로 활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 때에 도화원(圖畵院)의 종6품 벼슬인 선화(善畵)에서 체아직(遞兒職)인 정4품 호군으로 승진되었는데, 이는 조선 초기의 화원으로서 한품(限品)인 종6품의 제한을 깨고 승진한 최초의 예가 된다.

신숙주(申叔舟)의 『보한재집(保閑齋集)』에 의하면 그는 본성이 총민하고 정박(精博)하였다고 하며 안평대군(安平大君)을 가까이 섬기면서 안평대군이 소장하고 있던 고화(古畵)들을 섭렵함으로써 자신의 화풍을 이룩하는 토대로 삼았다.

안견의 화풍은 지금 일본의 덴리대학(天理大學)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의 전칭작품(傳稱作品)인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작품들을 보면 안견이 북송(北宋) 때의 대표적 화원이었던 곽희(郭熙)의 화풍을 토대로 하고 그 밖에 여러가지 다른 화풍의 요소를 수용하여 자기 나름의 독특한 양식을 이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비단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신숙주의 『보한재집』에 있는 화기(畵記)나 김안로(金安老)의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산수화에 가장 특출하였지만 그 밖에도 초상(肖像)·화훼(花卉)·매죽(梅竹)·노안(蘆安)·누각(樓閣)·말·의장도(儀仗圖) 등 다양한 소재를 그렸다.

안견이 남긴 작품은 기록들에 상당수가 보이나 그 중에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43년의 「이시마산수도(李司馬山水圖)」, 1445년 이전에 그려진 것으로 『보한재집』에 기록되어 있는 「팔경도(八景圖)」 등 30점, 1446년과 1447년에 제작된 「팔준도(八駿圖)」, 1447년 이전에 그려진 「임강완월도(臨江玩月圖)」, 1447년에 제작된 「몽유도원도」, 1448년(세조 10)에 그려진 「대소가의의장도(大小駕儀仗圖)」, 그리고 1464년에 중국사신을 위하여 그린 「묵죽도(墨竹圖)」 등이 대표적이다.

안견의 작품으로 전해오는 여러 그림들 중 가장 큰 작품은 적벽도이다. 적벽(赤壁)은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벽대전이 일어난 곳이자 중국 북송대의 문장이었던 동파(東坡) 소식의 「적벽부」의 배경이 된 곳으로, 중국에서 이를 주제로 한 유사한 그림이 많이 전해온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모두 없어져서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오직 「몽유도원도」만이 유존하고 있으며,



이밖에 「사사팔경도」 등이 그의 작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그림들은 경물들이 흠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구도상의 특색을 비롯하여 공간개념과 필법 등에서 한국적인 특징을 짚게 되고 있다.

1447년(세종 29) 음력 4월 20일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박팽년(朴彭年, 1417~1456) 등과 함께 노닐었던 도원(桃源)의 광경을 안견에게 그리게 하였는데 안견은 3일만에 그림을 완성하였다. 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평대군이 꾸은 꿈은 중국 동진(東晉) 때 시인인 도잠(陶潛, 365~427)의 도화원기(桃花源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몽유도원도는 각화와 화풍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화풍의 영향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인 자신만의 화풍을 형성하여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몽유도원도에서 두드러지는 안견의 독창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인 두루말이 그림과는 반대로 그림의 왼쪽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독특한 화면구성을 들 수 있는데, 화면의 좌측 아래쪽에서 우측 위로 대각선을 따라 현실세계와 꿈속의 세계를 효율적이고도 치밀하게 배치하였다. 또한 평원(平遠)과 고원(高遠)의 대조를 통해 산세(山勢)의 웅장함과 환상적인 느낌을 더욱 고조시키고, 넓게 펼쳐진 도원(桃源)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부분과는 달리 이곳만 조감도법(鳥瞰圖法)을 사용하여 묘사하였다. 세부 표현도 매우 뛰어나 선묘는 세밀하여 일획의 실수도 없이 정갈하며, 박락되어 흔적만 살펴볼 수 있는 복사꽃 꽃술의 금채(金彩)를 제외하고는 정교하게 채색된 부분 역시 아직도 화려함과 영롱함을 잃지 않고 있다. 화면 오른쪽 아래 구석에 '지곡가도(池谷可度)'라는 안견의 관지(款識)가 있고 이어서 주문방인(朱文方印) [가도(可度)]가 찍혀있다

현재 몽유도원도는 상, 하 2개의 두루말이로 표구되어 있는데, 상권의 첫머리에 '몽유도원도'라는 안평대군의 제첨(題簽)과 몽유도원도가 완성된 지 3년 후에 지은 안평대군의 칠언절구(七言絕句)가 주서(朱書)로 쓰여있으며 이 시문에 이어서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가 펼쳐져 있다.

그림 뒤에 안평대군의 발문이 붙어있으며, 그 뒤를 이어 세종조의 대표적 인물 21명의 찬시(贊詩)가 실려 있다. 상권에는 안평대군의 발문에 이어서 신숙주(申叔舟), 이개(李愷), 하연(河演), 처관(宋處寬), 김담(金淡), 고득중(高得宗), 강석덕(姜碩德), 정인지(鄭知止), 박연(朴堧)의 찬시가 있으며, 하권에는 김종서(金宗瑞), 이적(李适), 최항(崔恒), 박팽년, 윤자운(尹子雲), 이에(李芮), 이현로(李賢老), 서거정(徐居正), 성삼문(成三問), 김수온(金守溫), 만우(卍雨), 최수(崔脩)의 찬시가 실려 있다.

이처럼 몽유도원도 권(卷)은 시(詩), 서(書), 화(畵) 삼절(三絶)의 수준 높은 경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세종조의 빼어난 문화적 역량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용의 문학적 성격은 물론, 서예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그림은 안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 후의 한국 산수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에는 안견의 예술혼을 후세에 기리고 문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991년에 개관한 안견기념관이 있다. 1619년(광해군 11) 저술된 서산의 읍지 『호산록』에 안견 출신지가 '서산군 지곡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산 문화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서산시는 안견의 출신지인 지곡면에 몽유도원도를 실측 크기로 조각한 기념비를 건립했다. 안견 기념관에는 안견의 작품인 몽유도원도를 실측 크기로 제작한 영인본을 전시하고 있으며, 적벽도, 사시팔경도, 소상팔경도 등 총 18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향토 작가의 미술품도 같이 전시되어 있다.



안견기념관 전경

안견 선생의 사시팔경도



만하(晩夏)



초하(初夏)



만준(晩春)



초춘(初春)



만동(晩冬)



초동(初冬)



만주(晩秋)



초추(初秋)

정순왕후 (1745~1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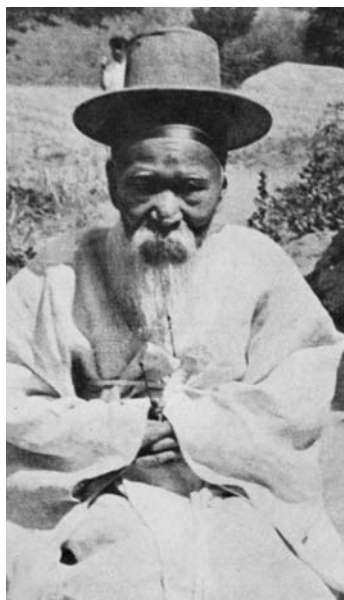
음암면 유계리 464번지에는 정순왕후 생가라고 하여 충청남도지정 기념물 제68호로 1988년 8월 30일 지정된 한옥이 있다. 여기서 태어난 정순왕후는 어린나이에 영조의 계비로 간택되어 격동기를 살다간 인물이다. 정순왕후는 본관이 경주 김씨이고, 1745년(영조 21년) 음암면 유계리에서 태어났다. 본래 이곳은 고려말 김자수가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주김씨는 이곳 한다리 마을에 자리잡게 되었다. 효종때 문신인 학주 김홍옥이 노부인 김절을 모시고 있을 알고 효종이 하사한 가옥이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 벼슬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 일대에 유명한 양반 가문이 되었다. 이곳에서 학주 김홍옥의 4대손인 김한구의 맏딸이 정순왕후 이다.

1759년 15살의 나이에 왕비에 책봉되었는데, 이때 간택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 간택을 받을 대상자를 선별한 후 질문을 통해 선정하였는데, 그때 했던 질문들은 다음과 같았다. 방석을 비켜앉은 이유-방석에 아버지의 함자가 쓰여있기 때문. 가장 맛있는 음식-소금, 가장 아름다운 꽃-사람의 웃을 만드는 면화, 가장 깊은 것-사람의 마음, 건물의 기와곳을 몇 개인가-비오는날 낙수가 떨어져 패인 구멍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림. 가장 넘기 힘든 고개-보릿고개에 현명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18살의 나이에는 사도세자를 폐하고 귀에 가뒷 죽는 일이 생기고, 32세의 나이에는 정조가 즉위하게 된다. 영조와 정조시대는 조선왕조가 중흥을 걷던 시기임과 동시에 당파간의 싸움이 치열했던 시대였다. 그 중심에 정순왕후가 있었다. 그리하여 후세의 역사가들은 정순왕후에 대한 평가를 내림에 있어 이로 인해 폄하되기도 하지만, 서산이 배출한 유일한 왕비로서의 평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800년에는 정조가 승하하자 순조가 왕위에 오르고 수렴청정을 시작한다. 순조시대부터 시작된 삼정의 문란과 족벌정치로 인해 민중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세에 구원을 준다는 천주교가 학문을 넘어 종교로서 믿게 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천주교의 급격한 전파는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 수렴청정을 한 정순왕후는 천주학을 엄금하고 오가작통법으로 감시하고, 신유사옥을 일으킨다. 1803년에는 수렴청정을 거두고 1805년 61세의 나이로 승하한다. 시호는 정순, 휘호는 소속정헌, 전호는 효안, 능호는 원릉으로 정해진다.

한월당(寒月堂) 김상정(金商玎) (1875~1954)



김상정은 강화도 사건이 일어난 해인 고종 12년(1875년) 9월 충남 예산군 봉산면 마교리에서 출생했으며, 6.25 동란을 겪은 직후인 1954년 8월 서산군 성연면 고남리에서 타계하였다. 본관은 경주, 자는 명옥(明玉), 호는 한월당(寒月堂)으로 독립운동가이다. 하지만 김상정 선생은 지역의 독립운동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한월당의 고조부인 김한록(金漢祿)은 조선후기 기호학파내 최대의 학술 논쟁였던 호락논쟁의 중심에 서서 호학을 주창한 유학자인 한원진(韓元震)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이다. 이후 이러한 학풍은 홍주 문화권에서 김복한, 이설을 비롯 김상정 등 유생들에게 전수되어 19세기 후반 적극적인 위정척사운동 내지는 항일민족운동을 일으키는 사상적 연원이 되었다.

김상정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심히 빈곤하여 스승을 모시고 수학할 형편이 안되었지만 고조부인 김한록 학문을 계승하여 민족적 위기가 닥침에 따라 척이단의 이념을 실천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망국민이 된 그는 철저한 의리론에 입각한 항일투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1918년에 고종황제의 승해(昇遐) 비보를 듣고 혈서로 '대명의로(大明義理)' 네 글자를 기(旗)에 써서 꽃고 대성통곡해 군중을 격동 시켰으며, 이로 인해 3·1운동의 유도자가 되었다.



1919년 정초에 왼손가락을 잘라 ‘복수대의’라 혈서하여 높은 대에 걸어놓고 민족의 봉기를 촉구하는 혈서투쟁을 전개하였다. 100여장의 혈서를 쓰는 동안 피가 마르자 가슴을 찢어 피를 내어 격문을 써서 거레의 의거(義舉)를 촉구하고, 한달 후 다시 장지(長指)를 찢어 격문을 써서 군중을 지휘·서동하였다.

그 후 3·1운동 직전에 왜경에게 피납, 갇은 악형을 당하고 혈서와 의거, 격문 등을 모두 빼앗겼다. 그 뒤 왜경이 찾아와 조선을 합병한 것은 ‘조선의 요청에 의한 것이니 협조하라.’고 회유하자, 그는 왜경을 몽둥이로 마구 구타하고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2년에는 호별세 통지서가 전달되자 남의 나라를 빼앗은 놈들이 세금까지 내라느냐 노발대발하고 손가락을 찢어 혈서로 왜왕 대정(倭王大正)과 총독을 꾸짖는 한시를 쓰고 또 나 대한일민은 세금 안 낸다고 써서 통지서와 함께 왜왕에게 보내라고 반송하였다.

1924년에는 전매령(專賣令)이 내려 담배 경작을 임의로 못하게 하자, 그는 팻말을 써서 꽃고 동리가 공모하여 계속 경작케 하니 왜노가 또 체포하였다.

1933년에는 행정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납치, 녹식(勒食)강제로 식발하는 것을 하려 하자 왼손을 물어뜯어 피를 입에 물어 왜경의 얼굴에 뱉어대는 바람에 녹식을 못하였다.

그는 항상 상복을 입었으므로 왜경들이 상복을 벗기려 해도 계속 입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왜경의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1937년 당시 여주 흥천면에 거주할 때 왜경이 찾아와 상복을 벗기려 하자 완강히 거부하니, 사상이 나쁘다고 마구 구타해 허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여주 감옥에 수감 당하였다.

그는 해방 후에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찾아가 친일매국노를 처단하여 민족정기를 확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신탁통치를 반대하여 완전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일평생을 항일 투쟁으로 마쳤고, 왜경이 갇은 악형과 행패로 그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끝내 불굴의 투지로 대한 남아의 기개를 만천하에 드높였다. 그의 유고를 아들 김홍제씨가 번역하여 “한월빙설”을 발간하였다. 올해 문화원에서는 “한월빙설”을 증간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학문과 항일투쟁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82년 대통령 표창, 1990년에는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독립운동가

이철영 (1884~1945)

이철영(李喆榮) 선생은 1884~1945년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살다간 인물이다. 그는 시대적인 환경에 처해 독립운동을 했다. 그의 독립운동 활동은 그리 잘 알려진 편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는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배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을 은둔자로 살았으며, 도피생활로 거처를 자주 옮겼기 때문이다.

그의 독립운동 활동은 살펴보면 한일합방의 고유문이 경찰서 게시판에 걸렸는데, 격분하여 포고문을 찢고 게시판을 태워버렸다. 이로 인하여 왜경에 잡혀 석달간 심한 고문을 받고 나서 도청 소재지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포승을 끊고 칼을 빼앗아 왜경 두명을 죽였다. 1926년도 『서산군지』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며, 이때 손가락 네 개가 잘리고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숯 굽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숯섬속에 몸을 감춰 지게로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 구문도가에서 피신하여 반년동안 부상을 치유하여 완쾌되었다. 이 후 계룡산과 지리산으로 들어가 십년간을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도 광복을 위해 단을 만들어 기도하였다.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최숙현(동생의 처남)의 주선으로 이의영이라고 개명하고 송악면 기지시리 노공재가에서 한학을 교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송산면 부곡리 등지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이로 인하여 1993년 『당진향교지』의 인물편에 선생과 관련된 기록이 전하게된 이유이다. 선생은 끝까지 독신으로 생활하다가 1943년 동생집으로 돌아와 은거하다가 1945년 2월 8일 서거하였다.

선생이 서거한 이후 2년 뒤인 1947년에 지역의 민족의식을 지닌 분들이 제문을 짓고 의사로 추존하였으며, 1960년에는 서산군수와 지역유림들이 세운 추모비가 지금도 시청 정문앞에 있다.

이처럼 선생의 독립운동에 의사로서의 활동은 구전이나 지역일부에서 전해지다가 지역의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분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선생의 독립운동이 다시금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판소리 4명창

고수관 (생몰년 미상)

고수관(高壽寬, 생몰 미상)은 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에서 태어났다고 전하며, 생가지가 현재 복원되어 있다. 이후 말년에는 공주에서 살면서 판소리를 지도했다고 전해지며, 소위 전기 4명창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세한 행적은 전해지는 바가 적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판소리계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후원자였던 신재효(申在孝, 1812~1884)도 자신이 지은 「광대가(廣大歌)」에서 “高同知 壽寬이란 同我婦子 鑑彼南畝 懸壺問答하는 거동 勤課農桑 白樂天이라.” 하여, 그의 구수하고 은근한 창법을 백낙천에 비기고 있다. 고수관은 또한 유식하고 글재주가 있어서 소리판에서 즉흥적인 한시를 잘 지었다고 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구 경상감영에 초청을 받아 〈춘향가〉의 기생을 점고하는 대목을 부를 때, 그 자리에 참석한 기생 이름마다 즉흥시 한 수씩을 붙여 불러서 참석자들이 감탄했다고 한다.

고수관을 비롯한 당시 명창들에 대한 기록은 곳곳에 전한다. 고수관은 목소리가 아름답고 탄 목청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탄청일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더듬인 ‘춘향가’ 중의 ‘자진 사랑가’는 연계달의 소리제를 받아서 짤 추천목으로 구수하기 이를 데가 없다. 소위 ‘고수관제’란 바로 춘향가 중의 ‘자진 사랑가’를 말한다.

고수관은 만년에 화류병에 걸려서 코먹은 소리(鼻音)으로 자진 사랑가를 불렀다고 하는데, 후배들은 이 비음의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노래는 송만갑(宋萬甲)과 전도성(全道成) 등이 따라 불러서 오늘날까지 전해지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소리꾼들은 연극 무대를 위하여 개작한 ‘창극조 사랑가’를 부르고 있다.

현재 고수관의 일생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전해지는 일화 외에는 구체적인 행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고수관이 공주에 살고 있을 당시, 서울에서 음악인들이 조직했던 원각사(圓覺社)와 유사한 단체가 결성되었고, 고수관이 이 단체를 통하여 활동하였다고 하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선시대 여류시인

오 청취당(吳淸翠當) (1704~1732)

오청취당(吳淸翠堂, 1704~1732, 별호 慶雪菊)은 해주 오씨 오기태(吳基泰)의 딸로 남편은 한다리 김씨 김한량(金漢良, 1700~1752)이다. 청취당이라는 호는 성자의 맑은 성품과 대나무의 푸른빛을 취해서 스스로 지은 호이다. 문집으로 『淸翠堂集』은 청취당의 외손 박종규가 1803년 12월 하순에 편찬된 후, 집안의 가보로 내려오던 중 2009년 문희순 교수의 역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오청취당은 오랫동안 벼슬살이를 못해 평민과 다름없는 생활을 한다리 김씨 집안으로 2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시집을 오게된다.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았으나 앓고, 병에 시달리다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러한 불우한 환경속에서 시는 마음의 근심을 풀어주었다. 오청취당은 자신에게 맞닥뜨려진 삶의 고난과 역경을 한시 창작으로 승화시켰다. 그녀에게 있어서 시를 구상하고 엮어 내는 일련의 창작과정은 자기 수련이요, 극복이며 환희의 순간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짧은 생애를 회고하고 갓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잠롱이 비를 만나 하늘로 오르듯이 그렇게 성장해 주기를 염원하는 시를 써 모성의 피맺힌 절규를 토해 내었다. 슬프되 슬프지 않은 애이불비(哀而不悲)의 문학 경지를 구축하였다. 청취당의 문학 작품은 '삶 그 자체'였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취당의 묘소는 현재 서산시 팔봉산 자락 아늑한 뒷켠에 자리하고 있다. 그녀의 문집 『淸翠堂集』에 182수의 한시는 이러한 삶의 기록인 셈이다. 다음의 한시 한수를 통해 그녀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가 부러워하는 것

평생에 무엇이 부러운가
남악에 살고 있는 여선일세.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세상사 어려움에 얽매지 않네
놀을 먹고 야원 뺄 길러
학과 어울려 가벼운 몸 신도다.
우습구나. 삼십도 못 된 이 몸
고을 얼굴 점자 봄기운 잃어가네



- 이 시는 현실의 고통을 이상세계를 통해 승화하고, 젊은 나이에 병으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읊었다.

중고제의 마지막 전수자

심정순 (1873~1937)



심정순은 1873년 심팔록의 아들로 서산읍 학돌재에서 태어났다. 심정순의 아버지 심팔록은 피리와 통소의 명인으로 그는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그의 자녀와 손자들은 모두 예술에 재능을 보인 예인집안이다. 심창래는 가야금 병창의 명인 심상건의 부친이자 가야금 산조의 명인이며, 심재덕은 심정순의 장자로 가수 심수봉의 아버지이다. 심화영에게 양금과 판소리를 가르쳤고, 서산에서 아버지의 율방을 이어받아 운영하다가 동생 심화영과 청진권번으로 갔다. 이후 서울에 정착한 그는 강의와 논문을 집필하기도 했다.

심정순은 24살에 판소리, 가야금을 배우게 되었고, 이후 35세에 서울로 상경하여 장안사라는 극장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38세에는 음기사회를 움직여 가야금 시나위, 가야금 굿거리,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등을 취입, 당시 크게 이름을 떨쳤다. 1912년에는 매일신문에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사설을 구술창본으로 연재하였고, 이것이 문인 이해조에 의하여 소설본으로 출간되어 국문학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40세대인 1913년에는 장안사순업대(長安社巡業隊)를 이끌고 개성, 의주, 평양, 진남포 등 이북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공연하였다. 이때 이미 이동백, 김창룡등과 필적하는 소리꾼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유명세를 치러 매일신보 기사에 나오는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다가 53세때 중풍에 걸려 서산으로 낙향하게 된다.

이 시기 큰아들 심재덕과 함께 낙원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한성준과 김창룡 등의 결혼한 예술가들이 자주 들렀었다.

그의 음악은 조카 심상건, 장남 심재덕, 장녀 심매향, 이녀 심화영으로 이어져 중앙 무대에 서산 지방의 국악을 심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심화영은 중고제의 마지막 계승자이다. 18세에 오빠에게 판소리 춘향가와 심청가 한바탕, 양금, 승무를 배웠고, 청진 권번으로 가 10년간 활동했다가 33세에 송씨와 결혼 한 후 활동을 중단했고, 50대 중반에 활동을 재개하였다. 2000년에는 충남무형문화재 제27호로 승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고 2009년 타계하였다. 지금은 그의 외손녀가 전승자로서 그 맥을 잇고 있다.

청춘예찬

민태원 (1894~1934)

민태원은 1894년 음암면 신장리에서 민삼형의 5남 1녀중 4남으로 출생하였다. 조부가 산청현감을 지낸분이어서 그의 집은 민산청택으로 불렸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대학등의 한학을 공부하였다. 16세 되던 1909년 결혼한 후 상경하여 수하동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다. 21살에 경기 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성관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다. 이후 매일신보에 기자로 입사하여 『청춘』9호에 수필 “화단에 서서”를 발표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고 필명인 우보(牛步)를 사용한다.

27세인 1920년에 일본의 와세다대학 정경과에 입학을 한다. 31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사회부장, 정치부장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다. 조선일보로 이직후 편집국장으로 약 4년간 근무하게된다.

1926년에는 경영난에 빠진 시대일보를 이상협이 인수하여 중외일보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하였는데, 민태원도 이때 중외일보로 옮겨 편집국장이 된다.

1929년 6월에는 『별건곤』 4권 4호에 「청춘예찬」이 수록되었다. 현재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있는데 원문과는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춘예찬이 실린 내용의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손을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꼭 이것이다. 이성엔 투명하되 열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이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열음에 싸인 만물은 죽음에 있을 뿐이다. -중략-



청춘예찬 비(음암면 신장리)

같은 해 중외일본의 필화사건이 일어나면서 신문사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하여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41일세가 되는 1934년 사망한다. 사인은 폐결핵이다.

그는 언론인과 문인으로서 많은 작품과 초기 신문사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가 유명해진 배경은 '청춘예찬'이란 수필때문이지만, 청춘예찬 이외에도 꽤 많은 수필과 소설, 희곡, 논설등의 글을 남겼다. 지금도 음암면 신장리에는 청춘예찬 비석이 도로변에 있으며, 신장리에는 원래 형태는 많이 잃어버렸지만 생가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

나비

윤곤강 (1911~1950)

윤곤강은 서산읍 동문리 777번지에서 윤병규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명은 적원이고, 19세때 명원으로 개명하였다. 그의 아호인 곤강은 천자문속의 「金生麗水 玉出崑崗」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13세때에는 온양의 예안 이씨와 용완과 결혼하였지만, 당시에도 너무 빠른 조혼이라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고 한다. 부인 이씨는 곤강의 시작활동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14세까지 한학을 배웠고, 15세 되던 해 부친을 따라 서울로 상경하여 보성고보 3학년에 편입하여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18세인 1928년에 보성고보를 졸업하고 해화전문에 입학하였으나 5개월 만에 그만두게 된다.

20세인 1930년 일본으로 건너가 센슈우대학에 들어가고, 1931년에 좌익성향의 잡지였던 『비판』에 그의 첫 작품 「옛 성터에서」를 발표한다

23세에 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카프에 가담하고 다음에 연희전문에 입학한다. 소설 『이순신』, 평론 『소살리알리즘』을 발표한다.

카프의 제2차 검거에 관련되어 피검되어 약 3개월만에 석방되었다. 출감후 당진군 당진읍 사곡리로 낙향한다. 1937년에 다시 상경하여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된다. 4권의 시집을 연달아 발간하고, 35세에 다시 당진으로 내려온다. 1948년 38세에 중앙대 교수로 임명되면서 이때부터 이전의 시와는 다른 전통적 정서의 『피리』, 『살어리』를 편낸다.

1950년 40세의 나이로 별세하여 당진군 순성면 갈산리에 안장된다. 그는 첫시집 『대지』로부터 마지막 시집 『살어리』에 이르기까지 십년 남짓한 동안 여섯권의 시집을 내놓았다. 이는 그가 쉬지 않고 시를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단히 변모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 인식을 그 속에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시가 다른 동시대의 시인들과 달리 독자성과 주체성을 갖추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윤곤강은 시인의 자질로서 현실에 대한 바른 안목과 역사를 바라보는 진실한 삶의 자세를 꾀았음은 물론 그러한 삶의 자세가 문학적으로 걸려지고, 단단한 의미망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인이다. 시정신을 일관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시대 의식이며, 부단히 작품 속에 그것을 녹여 내려고 애썼던 시인이었다.



윤곤강 시비(서산시문화회관)

그의 대표작 나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비바람 험상궂게 거저간 추녀 밑-
날개 찢어진 늙은 노랑나비가
맨드라미 대가리를 물고 가슴을 앓는다.

찢긴 나래에 맥이 풀려
그리운 꽃밭을 찾아갈 수 없는 슬픔에
물고있는 맨드라미조차 소태맛이다.

자랑스러울손 화려한 춤재주도
한 옛날의 꿈조각처럼 흐리어,
늙은 〈舞女〉처럼 나비는 한숨 진다.

아동문학가

윤석중 (1911~2003)



윤석중(1911~2003)은 서울 중구 수표동 13번지에서 태어났다. 윤석중 위로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어려서 모두 죽고 혼자 자랐다.

윤석중이 문학활동을 시작한 것은 1924년 「봄」이 『신소년』에 입선되고 1925년 「오뚜기」가 『개벽사』의 어린이지에 입선되면서 부터이다.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극 「울뱀이의 눈」이 선외가작으로 뽑히기도 하는 등 다른 장르를 시도해보기도 하다가 동요창작에 전념하게 된다. 이듬해인 1926년인 양정고보 2학년때 조선물산장려가가 당선되어 천재 어린이 예술가로 알려지게 된다. 그는 열세살때부터 동시를 쓰기 시작하여 92세로 생을 마감할때까지 한 세기 동안 어린이 운동을 하였다.

1935년 9월 결혼한 뒤 아버지가 사는 음암면 울목리 46번지로 내려와 살면서 서울과 서산을 오가며 문학활동을 하였다. 1939년 조선일보사에서 잡지 『소년』과 『유년』의 편집일을 맡던 중 사장의 배려로 도쿄의 카톨릭 학교인 상지대학 신문학과로 유학을 하게된다. 1944년 귀국을 하고 일제의 징용을 피해다니던 중 해방을 맞이한다.

해방후 수많은 학교에서 교가를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데, 강원도에서 제주로까지 돌면서 30군데의 학교에 교가를 지어주게 된다.

1950년 『아침까지』를 출간하고 뜸하던 그는 54년 『윤석중 동요100곡』을 출간하면서 1년 혹은 2년 사이로 쉬지 않고 책을 출간한다.

1956년 새싹회를 창립하고 소파상을 제정한다. 1977년 계간 『새싹문학』을 창간하고 1988년에는 세종대학교에서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3.1문화상(1961), 문화훈장 국민장(1966), 외솔상(1973), 라몬막사이사이상(1978), 대한민국 문화상(1982), 세종문화상(1983), 대한민국 예술원상(1989), KBS 정요대상(1990), 인촌상(1992)등을 수상한다.

그는 타계하기까지 30권이 넘는 작품집을 내면서 수많은 학교에 교가를 지어주는 등, 아프고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밝고 맑고 따뜻한 정서를 심어주는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동요들은 「가차길 옆」, 「풍당풍당」, 「낮에 나온 반달」, 「앞으로 앞으로」, 「어린이날 노래」, 「졸업식 노래」등 어릴적 수없이 불렀고 들었던 노래가 이분의 작품이다

직암 이철승

연안이씨인 직암선생은 음암면 탑곡리에서 태어나 향년 73세로 작고 했다.

직암선생은 4형제로 직암을 빼고 나머지 형제는 모두 단명하게 되며, 유일하게 조카 경운이 있었으나 역시 후손을 잇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했다.

직암선생은 제자를 대하는데 매우 엄하셨으며, 말 한 마디 걸기조차도 어려운 스승이었다. 직암의 학풍은 주자학 화서학파로 유문양의 학풍을 이어받게 된다.(성제 - 유문양 - 직암)

직암은 성균관 박사를 역임하게 되는데 그 때의 시대상은 사국이 어려운 일제강점기로 일본의 간섭에 의한 교육은 할 수 없으며, 성균관에서 나와 낙향하여 후진양성에 매진하게 된다.

이후에 강단에 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직암의 강직하고 출중한 교육관으로 태안, 당진, 예산, 홍성 등 인근 각지에서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수학했다.

직암의 제자는 현재 80세 후반에서 90세 중반으로 한 때 상당수가 요직에 등용되었으며, 한학의 대가인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조종업 선생이 있다.

철새의 낙원, 서산천수만입니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수만은 철새들의 천국이자 낙원입니다.

서산천수만은

매년 약 320여종 60여만 마리(하루 최대 개체수)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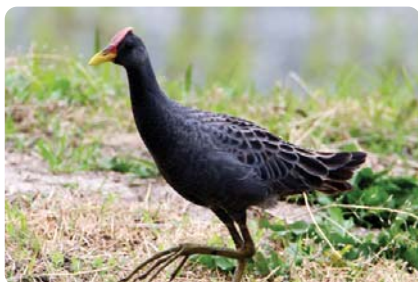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 천수만에서 펼쳐지는 철새들의 군무는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할 것입니다.

새와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 천수만 들판을 가득 메운 기러기와 30여만 마리의 가창오리군무, 50여 마리의 노랑부리 저어새의 우아한 자태, 청둥오리, 황새는 여러분들을 새들의 세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비행, 위대한 비상의 천수만에서 여러분의 꿈도 하늘로 높이 날아오릅니다.

살아있는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교육장 국내 최초로 철새기행전이 열린 곳으로, 천수만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자연의 세계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신기함을 전해줄 가족단위 환경체험현장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서산천수만 서산천수만은 오리기러기네트워킹에 가입되어 있으며 외국의 수많은 탐조마니아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름에 볼 수 있는 **참새**



물부기

몸길이 약 35~43cm 정도로 수컷이 약간 크다. 수컷의 여름깃은 아래 꼬리덮깃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짙은 흑갈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줄을 지어 배열돼 있고 이마에서 머리 꼭대기는 붉은색의 벼슬이 있다. 흔한 여름철새였으나 최근에는 그 개체수가 격감되어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 446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호시드요

몸길이 약 23.5cm이다. 암컷의 정수리는 어두운 갈색이며 가운데에 크림색 줄이 나 있다. 눈둘레에는 반달모양 흰색 무늬가 뚜렷하다. 수컷은 목과 뒷가슴에 회색 세로무늬가 있다. 등은 암수 모두 녹색을 띤 갈색에 붉은 체크무늬와 세로무늬가 있다. 부리는 길고 붉은색을 띠며 부리가 시작되는 부위와 다리는 녹색이다. 암컷은 이 둥지 저 둥지 옮겨다니면서 새로운 수컷과 교미하여 알을 낳으며 수컷이 새끼를 기른다.



장다리물떼새

도요목 장다리물떼새과의 조류로 몸길이가 48~51cm이다. 긴 핑크색 다리와 검정색 부리, 검정색 윗면과 흰색 아랫면의 대비 등으로 다른 종과 구별하기 쉽다. 간척지 습지, 바닷가, 논, 호수, 삼각주 등지에 찾아와 얕은 물에서 먹이를 찾아 조용히 걸어다니다가 멈출 때는 몸을 위아래로 흔든다. 한국에는 드물게 찾아오는 여름철새로 천수만지역의 농경지에서 번식한다.

겨울에 볼 수 있는 **천새**



붉은병아리 Great Crested Grebe

몸길이 49cm 정도 논병아리류 중 가장 큰 종이며 긴 목이 특징이다. 여름 깃은 귀깃 부분이 적갈색이며 머리와 목의 경계는 검은색이나 겨울 깃은 얼굴과 앞 목은 흰색이고 부리는 분홍색이다. 유럽 북부, 시베리아, 만주, 몽고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 한국, 일본 등지로 이동하여 월동한다.



왜가리 Grey Heron

몸길이 93cm 정도이며 머리 꼭대기는 흰색이고 눈 위에서 뒷머리까지 검은색이며 2~3개의 땃깃이 있다. 앞목 중앙에 검은색의 줄무늬가 있으며 어깨깃도 검은색이다. 날때 목은 구부리고 다리는 뒤로 쭉 뻗는다. 한국,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천수만에서는 사시사철 관찰되고 있다.



대백로 Great Egret

몸길이 95cm 정도로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백로류 중 가장 큰 겨울철새이며 중대백로의 이종으로 분류된다. 여름 깃은 목 아래쪽, 어깨와 등에 장식깃이 있고 눈 앞 부분은 녹색이다. 시베리아 남동부, 중국 북부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 한국, 일본, 중국 남부 등지로 이동한다.



홍새 Oriental White Stork

몸길이 112cm 정도이며 부리는 매우 크고 검은색, 눈주위와 다리는 붉은 색이다. 몸 전체는 흰색이며 검은색의 날개깃은 안아 있을 때 꼬리부분이 검은 것처럼 보인다. 천수만에서는 외통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나 다른 새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 관찰된다.



노랑부리저어새 Eurasian Spoonbill

몸길이 86cm 정도이며 몸 전체가 흰색이고 다리와 부리 기부 끝 부분에 노란색을 띤 주걱 모양의 부리가 특징이다. 어린새는 부리가 연한 갈색이고 날개 끝이 검은색이다. 천수만에서는 주로 해미천에서 집단으로 월동하며 일부시기에는 수 백마리의 대집단으로 월동하기도 한다.



크고니 Whooper Swan

몸길이 140cm 정도 몸 전체가 흰색이며 부리 끝과 다리는 검은색이다. 부리 기부의 노란색 부분이 앞으로 뻗도록 나뉘어 있다. 천수만에서는 간월호와 부남호 등지에서 월동하며 해미천 하류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해미천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종이다.



큰기러기 Bean Goose

몸길이 85cm 정도, 부리는 검은색이며 끝에는 주황색 띠가 있다. 머리와 목이 다른 기러기에 비해 어둡게 보이며 배는 연한 회갈색이다. 중국, 일본등지에서 큰무리로 겨울을 난다. 천수만은 국제적으로 가장 큰 큰기러기 월동지역중 하나이며 월동때는 3만마리가 넘을 때도 있다.



쇠기러기 White-fronted Goose

몸길이 72cm 정도, 부리는 분홍색 이마는 선명한 흰색이다. 회갈색의 배에는 불규칙한 검은색의 가로줄무늬가 있다. 북구에 가까운 툰드라와 캐나다 서부, 그린란드 등에서 번식하고 천수만에서는 큰기러기의 월동 개체 수 보다는 작지만 대단위가 월동한다.



흑부리오리 Common Shelduck

몸길이 63cm 정도이며 몸은 흰색, 머리와 목은 금속 광택이 나는 녹색, 부리와 다리는 붉은색 가슴과 등에 갈색 띠가 있다. 수컷은 번식기에 뒷부리의 흑이 커진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색이 연하고 부리 기부가 흰색이다. 유라시아 대륙, 만주 등에서 번식한다.



황오리 Ruddy Shelduck

몸길이 64cm 정도이며 선명한 주황색의 대형오리, 꼬리, 부리, 다리는 검은색이다. 수컷의 머리 부분이 흰색을 띤 주황색이며 목은 검은색의 얇은 목테가 있으나 겨울철에는 보이지 않는다. 유라시아 대륙의 온대지방에서 번식하고 유럽, 북아프리카, 한국등지에서 월동한다.

**가향오리** Baikal Teal

몸길이 40cm 정도이며 수컷의 얼굴에는 노란색, 녹색, 검은색의 태극무늬가 있으며 부리가 접하는 부분부터 머리꼭대기까지는 검은색이다. 시베리아, 아무르 등지에서 번식하며, 겨울철에 한국, 중국 남부,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난다.

**식오리** Common T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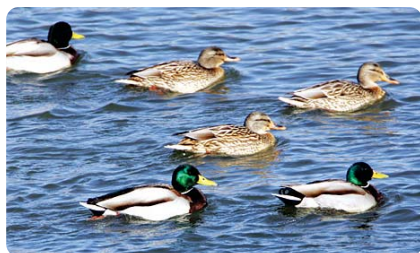
몸길이 36cm 정도로 오리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고 목도 짧다. 수컷의 머리는 밤갈색에 눈 뒤로 녹색을 띤다. 몸의 기운에 흰줄이 있고 꼬리 아래쪽에 노란 것이 특징이다. 천수만에는 가장 일찍 찾아오는 오리류이며 또한 가장 늦게 이곳을 떠나는 종 중의 하나이다.

**제갈매기** Herring Gull

몸길이 62cm 날개를 편 길이는 139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는 겨울철새이지만 일부 번식하기도 한다. 여름깃은 등과 날개 윗면은 흐린 회색이고 날개 끝은 검고 흰색의 작은반점이 있다. 해안의 청소부이며, 서해안 갯벌을 점잖게 걸어다니는 놈들은 사랑꾼이다.

**붉은부리갈매기** Black-headed Gull

붉은부리갈매기는 겨울을 대표하는 새이며,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천수만 지역에서는 바닷가 갯벌에서도 많이 관찰되지만 간월호의 모래섬과 부남호의 넓은 호수위에서도 많이 관찰할 수 있다. 일부 번식하지 않는 개체들이 일년내내 간월호의 외룡천 하구 모래섬주변에서 관찰된다.

**향둥오리** Mallard

몸길이 58cm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오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많은 수가 도래하는 종이다. 한국에서 관찰되는 오리 중에서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오리이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은 한국의 풍토에 가장 잘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뼘감둥오리** Spot-billed Duck

몸길이 61cm 정도이며 암수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종으로 멀리서 보면 뺨 부분이 희어서 한뼘감둥오리라 불린다. 부리 끝이 노란색인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번식하며 텃새로 자네기도 한다. 천수만에서는 한여름에도 갯 태어난 새끼들을 몰고 다니는 어미들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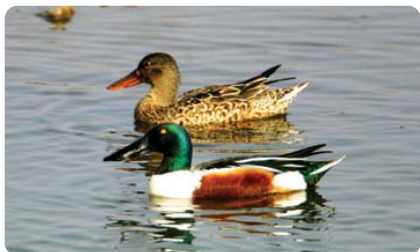
고방오리 Pintail

몸길이 75cm 정도이며 흔하게 관찰되고 오리 중에서 목이 긴 편으로 수컷은 목 앞과 배가 흰색인 것이 특징이다. 머리는 밝갈색이며, 몸은 회색을 띠며 검은 색의 긴 꽂지깃을 지녔으며, 암컷은 부리가 검은색이고 수컷에 비해 몸집이 작은 편이며 갈색을 띤다.



미오리 Common Merganser

몸길이 65cm 정도이며 흰죽지와 같은 잠수성 오리로 다른 오리류와는 달리 부리가 뾰족하고 끝이 구부러져 있다. 보통 오리들은 주걱모양의 부리를 하고 물고기보다는 수초나 무척추동물을 즐겨 먹지만, 대부분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



넓적부리 Northern Shoveler

몸길이 50cm 정도 내외로 수컷은 청색머리를 하고 있으며 흰색바탕의 몸에 붉은 벽돌이 박힌 것처럼 옆구리가 적갈색이다. 암컷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양수 모두 넓적한 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넓적한 부리에는 물에 떠 있는 미세한 조류와 소동물 따위를 걸러 먹을 수 있다.



물닭 Coot

몸길이 40cm 정도이며 몸 전체가 검고 흰색의 부리와 이마판이 뚜렷하며 다리는 검은색이며 판족을 가지고 있어 헤엄치거나 잠수하는데 편리하다. 러시아, 몽고, 한국 등지에서 번식하며 겨울철에는 중국 남부, 일본 남부 등으로 이동하여 월동한다.



잔빛개구리매 Hen Harrier

몸길이 수컷 45cm, 암컷 51cm이며 수컷은 날개 끝은 검은색, 몸 윗면은 밝은 회색, 허리와 몸 아랫면은 흰색이다. 암컷의 등과 날개는 흑갈색, 다른 개구리매류에 비해 눈썹선이 뚜렷한 편이며 꼬리는 길다. 노란색 다리는 가늘고 길며, 북아메리카, 유럽 등지에 걸쳐 번식하고, 겨울철에 한국, 일본 등지로 내려와 월동한다.



참매 Goshawk

몸길이 수컷 50cm, 암컷 56cm 정도이며 몸 윗면은 어두운 청회색이고 아랫면에는 가로줄 무늬가 있고 흰 눈썹선이 굵고 뚜렷하다. 시베리아 동부, 만주,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며 겨울에 한국, 중국 남부, 일본 남부 지방으로 이동하여 월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야산이나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관찰된다.



밀퐁가리 Common Buzzard

몸길이 수컷 52cm, 암컷 56cm 정도이며 날 때 날개 아랫면의 암갈색 점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몸 아랫면은 밝은 갈색이고 윗면은 어두운 갈색이다. 유라시아,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 한국, 중국 등으로 내려와 월동한다. 천수만에서는 흔하게 관찰할 수 있다.



황조롱이 Common Kestrel

몸길이 수컷 33cm, 암컷 38.5cm 정도이며 날개깃은 검은색이며 눈태와 발은 노란색이다. 꼬리는 화색이며 꼬리 끝에 검은 색 넓은 띠가 있다. 정지비행을 하는 대표적인 맹금류이다. 아프리카,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온대나 아열대 지방으로 이동하여 월동한다.



매 Peregrine Falcon

몸길이 수컷 42cm, 암컷 49cm 정도이며 눈 밑의 검은 무늬는 크고 뚜렷하며 배에는 가로줄무늬가 있다. 눈태는 노란색, 어린새는 등은 갈색, 배에는 어두운 갈색의 굵은 세로줄이 있다.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등 전세계에 널리 분포하여 번식하고 한국, 일본, 중국 남부 등지로 이동하여 월동한다.



흑두루미 Hooded Crane

몸길이 100cm 정도이며 뒷머리와 목을 제외한 전체가 검은색이다. 날 때 날개 전체가 검게 보이며, 어린새는 어미와 유사하지만 이마와 머리 부분이 흰색이며 연한 갈색을 띤다. 시베리아, 몽고의 북서부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한국, 일본 등으로 이동하여 월동한다.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재두루미 White-naped Crane

몸길이 127cm 정도이며 뺨이 붉고 흰 목에 화색의 띠가 올라와 있다. 시베리아 동부위 아무르 유역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이동하고 월동한다.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천수만에서는 소수의 개체만이 관찰되며 이동기와 철원 등지의 한파로 인하여 잠시 남하하는 개체가 관찰된다.

